농업·농촌경제동향

2014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jiyunpark@krei.re.kr/심민희 min2727@krei.re.kr
채상현 csh0331@krei.re.kr/)

연락처: 02-3299-4363 / 팩스: 02-964-5631

목 차

Ⅰ.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2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5
2. 농림어업 취업자 ····· 20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1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3
3. 양념채소 ····· 39
4. 과일 ····· 49
5. 과채 ····· 56
6. 축산 ····· 64

특별 주제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 73
2. 기업의 농업참여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 93

【요 약】

Ⅰ.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함.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3% 증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총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함.

● 2014년 3월 취업자는 25,16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49천명 증가함.

● 2014년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가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함.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실질로는 0.7% 증가)함.

● 2014년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함.

● 2014년 2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0.6%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MMF 및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함.

●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3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68원 보다 5원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분기 대비 2.9% 상승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함.

- 2014년 1/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곡류와 채소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과일류는 상승함.

- 2014년 1/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1.9% 상승함.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17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21.6% 감소함.

- 2014년 1~3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한 1,432백만 달러임.

- 2014년 1~3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8,4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TRQ를 초과한 수입량이 얼마나 되고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관세화유예 기간 중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함.

- 일본은 관세화 전환 시, 적용 가능한 기준년도 관세상당치를 종량세 402엔/kg으로 산출하였음. 농업협정에 따라 기준년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함.

- 일본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관세화 전환 이후 연간 100톤 내외가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연간 50톤 내외로 줄어들었음.

- TRQ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특별조치로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kg당 45NT$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함.

- 대만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로 추정됨(대만 농업위원회).

- TRQ 물량 중에서 SBS 물량 및 민간인에게 쿼터를 입찰하여 수입하는 물량과 TRQ 초과 수입량 간에 혼동이 있어서 TRQ초과 물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며 2003년 관세화 이후 30만 ha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관세화 이전 감소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벼 재배면적이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으로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세상당치가 국경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화 전환 시에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져서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음.

●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의 농업참여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업내부에서의 필요성과 기업의 필요성 등 양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 발생이나 소득 문제 등을 고려

하는 경우, 기업 단독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농업참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됨.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기존의 영세한 가족경영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경영방식은, ① 기업과 특정지역의 농가와 연대하는 방식, 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로서 농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기업은 생산관리·판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 ③ 기업이 기존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④ 기업이 독자적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반기업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식 등이 있음.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소 식품제조업체나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업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품이나 약재, 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다양한 원자재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새로운 경영영역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임.

-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차산업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임.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대하는 '농공상연대' 기업의 농업경영'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음.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비하여 임대차 완화를 전제로하여 임차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지역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농도·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지역농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진입과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영하기 보다는 임대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대차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부분적인 허용 외에 '해제조건부'또는 '지역한정'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농지임대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지를 임차한 기업이 중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함.

- 기업의 참여를 둘러싸고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제 정비, 다양한 경영모델 제시 등이 필요함.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농지제도 개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의 협조, 농지 알선, 계약해지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여사례별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참여기업과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절함.

Ⅰ.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9%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석유제품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2.1% 증가함. 농림어업은 양돈, 육우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4.3% 감소함.
-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이 부진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운수 및 보관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3% 증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4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기 대비 4.8% 증가,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가 부진하여 전기 대비 1.3% 감소,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총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 대비 0.5% 감소,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p				2014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2.3	3.0	2.1	2.7	3.4	3.7	3.9
최종소비지출	2.2	2.2	1.6	2.4	2.3	2.4	2.6
(민 간)	1.9	2.0	1.7	2.1	2.1	2.2	2.6
총고정자본형성	−0.5	4.2	−2.6	5.0	5.9	7.8	6.2
(건 설)	−3.9	6.7	1.9	9.8	8.8	5.4	4.1
(설 비)	0.1	−1.5	−12.7	−3.9	1.5	10.9	8.0
총 수 출	5.1	4.3	5.6	5.9	2.6	3.2	4.6
총 수 입	2.4	1.6	−0.6	1.4	0.6	4.9	3.8

주: 2013p, 2014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연간 GDP 성장률은 4.0%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e)			2015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 D P	2.4	3.5	3.0	3.9	4.0	4.0	4.2
민 간 소 비	1.9	2.1	2.0	2.9	3.2	3.1	3.7
설 비 투 자	−8.3	6.2	−1.5	7.3	4.1	5.7	6.3
건 설 투 자	6.4	7.0	6.7	3.0	1.0	1.9	3.0
상 품 수 출	6.5	2.7	4.5	4.5	8.4	6.5	8.3
상 품 수 입	−0.4	2.7	1.2	4.2	7.2	5.7	8.4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4.10. 발표한 「2014년 경제전망(수정)」 참고
2. 2014e), 2015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4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기보다 0.2%p 높은 수준이며, 전 분기보다도 0.5%p 상승함.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함.

● 2014년 3월 취업자는 25,16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49천명 증가함.

● 3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월보다 0.3%p 높으며, 전월보다 0.4%p 낮은 수준임.

● 3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도매및소매업(17만명), 숙박및음식점업(16만6천명), 제조업(14만3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2만명), 교육서비스업(9만1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4만1천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2만8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2만4천명) 등에서 감소함.

【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2	2013					2014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경제활동인구	25,501	25,091	26,138	26,187	26,078	25,873	25,945	3.4
(경제활동참가율)	61.3	59.9	62.2	62.1	61.7	61.5	61.3	2.3
취 업 자	24,681	24,184	25,326	25,410	25,346	25,066	24,913	3.0
· 농 림 어 업	1,528	1,167	1,686	1,724	1,504	1,520	1,179	1.0
· 광 공 업	4,120	4,172	4,199	4,167	4,261	4,200	4,294	2.9
(제 조 업)	4,105	4,156	4,182	4,152	4,245	4,184	4,279	3.0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9,033	18,845	19,442	19,519	19,581	19,347	19,440	3.2
(건 설 업)	1,773	1,656	1,801	1,775	1,783	1,754	1,683	1.6
실 업 자	820	907	812	777	733	807	1,031	13.7
실업률(계절조정)	-	3.3	3.1	3.1	3.0	-	3.5	-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4.1		2014. 2		2014. 3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5,650	3.0	25,997	4.1	26,187	3.1
취 업 자	24,759	2.9	24,819	3.5	25,163	2.6
(고 용 률)	(58.5)		(58.6)		(59.4)	
· 농 림 어 업	1,086	4.4	1,123	2.7	1,327	-3.0
· 광 공 업	4,297	2.2	4,289	3.2	4,298	3.4
(제 조 업)	4,280	2.2	4,274	3.3	4,284	3.5
· 건 설 업	1688	1.0	1663	3.7	1699	0.4
· 도소매·음식숙박업	5855	4.4	5867	5.9	5790	6.2
· 전기·운수·통신·금융	3067	2.4	3061	2.2	3038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8766	2.7	8816	2.5	9012	2.0
실 업 률	3.5		4.5		3.9	
(계절조정)	(3.2)		(3.9)		(3.5)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9%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2.2% 증가함.

● 2014년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 대비 0.4%), 준내구재(전월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전월 대비 -7.4%)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월p	2월p
소 매 판 매	2.4	0.3	1.2	0.7	1.2	5.5	−0.7
(내 구 재)[1]	5.3	1.4	2.9	−1.4	−1.5	4.0	10.2
(준내구재)[2]	−0.4	2.7	1.6	2.9	1.0	−2.8	−2.6
(비내구재)[3]	2.0	−1.4	0.2	0.7	2.8	10.0	−5.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실질로는 0.8% 증가)함.
- 경상소득은 2.3% 증가, 비경상소득은 3.6% 감소
- 근로소득(2.8%), 사업소득(0.4%), 이전소득(3.5%) 등을 중심으로 증가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실질로는 0.7% 증가)함.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실질로는 0.4% 감소)함.
- 가정용품·가사서비스(6.6%), 주거·수도·광열(4.2%)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교육(−1.8%), 기타상품·서비스(−6.4%) 등은 감소함.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실질로는 1.9% 증가)함.
- 교육(−0.2%)만 소폭 감소하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7%), 보건(7.5%), 음식·숙박(5.2%) 등의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 득	6.1	6.9	6.2	6.3	5.4	2.1	1.7	2.5	2.9	1.7
(경상소득)	6.2	7.4	6.2	5.9	5.4	2.3	2.1	3.0	2.8	1.7
(비경상소득)	4.3	−2.5	4.8	17.7	4.2	−3.6	−8.5	−10.7	4.8	3.1
소 비 지 출	2.7	5.3	3.6	1.0	1.4	0.9	−1.0	0.7	1.1	3.0
(식료품·비주류음료)	2.9	5.9	1.8	4.2	0.0	−0.3	−1.6	1.1	−2.5	2.3
(의류·신발)	5.9	5.8	9.3	2.1	5.2	2.2	4.8	0.5	0.9	2.6
(교 통)	2.4	3.6	2.6	−3.4	7.8	1.9	1.9	0.9	3.4	1.6
(교 육)	−2.1	−0.2	0.2	−6.1	−1.4	−1.8	−6.9	0.9	0.7	−0.2
(음식·숙박)	4.2	7.9	6.2	3.0	0.4	2.6	−0.1	0.4	4.6	5.2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4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로 전분기 대비 0.9% 상승, 전년 동기대비 1.1% 상승함.

●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3% 상승함.

- 상품은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3.1%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 1.5%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지 수	106.3	107.6	107.4	107.9	107.8	107.7	108.8
	(2.2)	(1.6)	(1.2)	(1.4)	(1.0)	(1.3)	(1.1)
상 품	108.9	110.2	109.6	110.3	110.1	110.1	111.3
	(3.0)	(1.6)	(0.6)	(1.2)	(0.8)	(1.1)	(1.0)
농축수산물	112.6	115.2	111.5	113.5	107.4	111.9	109.7
	(3.1)	(2.1)	(−1.0)	(0.2)	(−4.0)	(−0.6)	(−4.8)
공업 제품	107.9	108.6	108.4	108.8	109.7	108.8	110.4
	(2.9)	(1.0)	(0.2)	(1.1)	(1.4)	(0.8)	(1.7)
서 비 스	104.2	105.4	105.7	106.0	106.1	105.8	106.8
	(1.5)	(1.4)	(1.7)	(1.6)	(1.3)	(1.5)	(1.3)
집 세	108.3	110.2	110.9	111.6	112.2	111.2	112.9
	(4.1)	(3.0)	(2.6)	(2.6)	(2.5)	(2.7)	(2.5)
공공서비스	100.1	100.9	100.9	100.5	100.8	100.8	101.6
	(0.5)	(1.0)	(0.7)	(0.3)	(0.6)	(0.7)	(0.7)
개인서비스	104.8	106.1	106.3	106.8	106.7	106.5	107.4
	(1.1)	(1.2)	(1.9)	(1.8)	(1.4)	(1.6)	(1.2)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7.3	107.7	107.6	108.5	108.8	109.0
상 품	109.9	110.4	110.4	110.9	111.4	111.6
농축수산물	115.4	116.5	113.6	109.0	110.2	110.1
공업 제품	108.2	108.5	109.0	110.0	110.4	110.7
서 비 스	105.3	105.6	105.4	106.6	106.7	107.0
집 세	110.0	110.2	110.4	112.6	112.9	113.2
공공서비스	100.8	100.9	101.0	101.5	101.6	101.6
개인서비스	105.9	106.4	105.9	107.2	107.3	107.6

자료: 통계청

● 2014년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0.5% 하락함.

● 3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4.7로 채소, 과실이 내렸으나 축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함.

● 3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4.1로 석유·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 서비스는 운수, 교육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지 수	107.5	106.3	105.7	105.7	105.3	105.7	105.7
	(0.7)	(−1.9)	(−2.2)	(−1.4)	(−0.8)	(−1.7)	(−0.5)
농림수산품	108.3	105.6	100.9	102.8	98.1	101.9	104.2
	(0.8)	(−5.7)	(−7.8)	(−5.9)	(−4.5)	(−5.9)	(−1.3)
광 산 품	105.7	106.8	107.6	108.3	110.0	108.2	110.4
	(3.5)	(1.3)	(1.3)	(2.4)	(4.4)	(2.4)	(3.4)
공 산 품	108.6	106.4	105.4	105.1	104.4	105.3	104.2
	(−0.4)	(−3.4)	(−3.9)	(−2.6)	(−2.0)	(−3.0)	(−2.1)
전력/수도/가스	113.7	118.5	120.0	120.3	122.0	120.2	126.7
	(7.5)	(5.1)	(6.7)	(5.1)	(5.7)	(5.7)	(6.9)
서 비 스	104.2	104.2	104.3	104.7	104.9	104.5	105.5
	(1.6)	(0.4)	(0.1)	(0.4)	(0.5)	(0.3)	(1.3)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6.0	106.7	106.3	105.6	105.8	105.7
농림수산품	105.5	107.5	103.7	103.6	104.4	104.7
광 산 품	105.5	107.4	107.5	110.4	110.5	110.5
공 산 품	106.0	106.9	106.2	104.1	104.3	104.1
전력/수도/가스	116.7	118.6	120.2	126.7	126.7	126.8
서 비 스	104.0	104.2	104.3	105.4	105.5	105.7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0.7로 전분기 대비 보합, 전년 동기대비 3.3% 하락함.

● 3월 수출물가지수는 90.7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2%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 1.5% 하락함.

● 3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2.8로 전월 대비 1.5%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7.5% 하락함.

●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0.7로 섬유·화학제품, 반도체·전자표시장치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2%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지 수	97.9	93.8	95.5	94.8	90.7	93.7	90.7
	(−2.4)	(−6.5)	(−4.5)	(−2.8)	(−3.1)	(−4.3)	(−3.3)
농림수산품	111.5	99.2	101.1	96.3	93.9	97.6	93.1
	(−2.8)	(−14.6)	(−10.3)	(−16.0)	(−8.6)	(−12.5)	(−6.2)
농 산 물	145.0	149.5	157.5	155.8	146.3	152.3	152.7
	(23.8)	(20.1)	(11.0)	(−7.9)	(1.2)	(5.0)	(2.2)
수 산 물	103.1	86.3	86.3	80.2	80.1	83.2	78.2
	(−9.8)	(−24.2)	(−18.1)	(−20.6)	(−13.2)	(−19.3)	(−9.4)
공 산 품	97.8	93.7	95.5	94.8	90.7	93.7	90.7
	(−2.4)	(−6.5)	(−4.5)	(−2.7)	(−3.0)	(−4.2)	(−3.3)
화 학 제 품	111.7	109.0	108.6	108.1	103.9	107.4	103.8
	(−2.2)	(−5.7)	(−4.8)	(−1.0)	(−3.7)	(−3.8)	(−4.8)
제1차금속제품	100.6	93.6	91.9	88.9	84.9	89.8	86.2
	(−6.4)	(−9.6)	(−11.6)	(−10.7)	(−10.8)	(−10.7)	(−7.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92.2	94.4	94.7	90.4	91.0	90.7
농림수산품	99.5	97.9	100.2	92.2	94.2	92.8
농 산 물	147.9	145.9	154.6	148.6	151.8	157.7
수 산 물	87.2	85.7	86.0	77.9	79.6	77.1
공 산 품	92.2	94.4	94.6	90.4	91.0	90.7
화 학 제 품	107.7	110.2	109.3	104.3	104.1	103.1
제1차금속제품	92.2	94.0	94.5	85.6	86.7	86.4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9.7로 전분기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대비 4.1% 하락함.

● 3월 수입물가지수는 99.6으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대비 4.5%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대비 1.7%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전월 대비 0.6% 하락함.
- 자본재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소비재는 전월 대비 0.1% 상승함.

● 3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0.8로 전월 대비 2.3% 상승, 전년 동월대비 4.0%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지 수	110.8	103.9	103.8	103.5	99.4	102.7	99.7
	(−0.7)	(−10.0)	(−8.0)	(−5.9)	(−5.3)	(−7.3)	(−4.1)
농림수산품	107.3	103.2	104.9	100.6	95.5	101.0	98.6
	(−7.4)	(−5.2)	(−4.4)	(−6.0)	(−7.7)	(−5.9)	(−4.4)
농 산 물	111.1	106.8	105.5	98.6	91.5	100.6	94.3
	(−10.1)	(−5.0)	(−6.6)	(−11.5)	(−15.1)	(−9.5)	(−11.7)
축 산 물	110.9	109.0	113.0	111.9	109.6	110.9	115.3
	(2.9)	(−1.7)	(0.0)	(1.2)	(0.3)	(0.0)	(5.8)
광 산 품	130.6	121.2	120.8	122.7	117.1	120.5	117.5
	(1.9)	(−12.7)	(−8.9)	(−5.6)	(−3.3)	(−7.7)	(−3.0)
공 산 품	102.6	96.7	96.7	95.6	92.2	95.3	92.3
	(−1.7)	(−8.6)	(−7.5)	(−5.9)	(−6.1)	(−7.1)	(−4.6)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2.3	105.1	104.3	99.3	100.1	99.6
농림수산품	101.4	103.1	105.0	96.5	98.6	100.8
농 산 물	105.4	107.3	107.9	92.2	94.5	96.1
축 산 물	107.5	108.8	110.6	113.5	114.1	118.3
광 산 품	118.8	123.7	121.0	116.8	118.4	117.4
공 산 품	95.5	97.5	97.2	92.1	92.6	92.1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4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0.6%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

● 2014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MMF 및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

- 미 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7%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0.8%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7.3% 증가).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3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1]	8.7	8.4	10.2	10.7	9.5	11.5	10.7	12.1	11.3	10.9	9.8
M2[2]	5.1	4.8	4.9	4.6	3.9	4.6	4.7	5.1	5.3	5.2	5.2
Lf[3]	6.9	6.8	6.6	6.5	6.3	6.7	6.7	6.8	6.6	6.7	6.4
본원통화[4]	8.8	11.3	11.5	11.1	13.8	14.7	10.1	12.8	13.7	14.8	13.2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4년 3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기대,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전망 등으로 반등

- 회사채금리는 대체로 국고채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3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만기도래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해외중앙은행·은행의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순유입 전환

● CD(91일) 금리는 2월말 수준 유지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2.91	2.94	2.90	2.83	2.94	2.94	2.89	2.85	2.87
콜 금 리[1]	2.48	2.50	2.50	2.50	2.50	2.50	2.50	2.49	2.48
CD유통수익률(91일)	2.68	2.66	2.66	2.66	2.65	2.65	2.65	2.65	2.65
회 사 채[2]	3.38	3.33	3.29	3.25	3.37	3.36	3.32	3.28	3.30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3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68원 보다 5원 하락함.

-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우크라이나의 정정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승하였다가 이러한 우려들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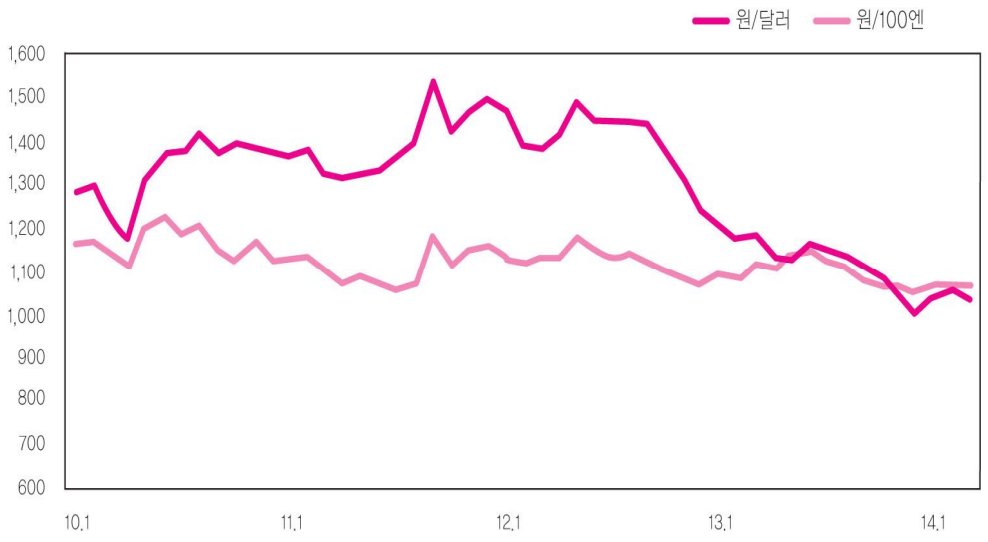
● 2014년 1/4분기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19원 하락한 1,030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3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1.103	1,128	1,144	1,120	1,109	1,073	1,060	1,059	1,045	1,072	1,068	1,063
원/100엔	1,127	1,118	1,158	1,144	1,130	1,096	1,078	1,034	994	1,039	1,049	1,030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Ⅱ. 농촌경제 동향[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4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분기 대비 2.9% 상승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함.

- 식료품 중 특히 채소류가 전년 동기대비 16.0%로 크게 하락함.
- 농업용품의 경우는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0.9% 하락한 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이 6.3%, 농업용 기계가 1.8%, 살충제 및 농약이 1.0%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2013		2013-2014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7.7	109.0	105.2	108.3	-0.6	2.9
식료품(이외)	106.1	106.1	105.3	105.6	-0.5	0.3
곡류	130.9	133.4	133.2	131.5	-1.4	-1.3
채소	102.8	117.5	81.7	98.7	-16.0	20.8
과실	138.4	120.6	111.6	131.5	9.0	17.8
축산물	87.7	86.5	96.4	96.1	11.2	-0.2
육가공품	85.8	84.8	86.3	90.0	6.1	4.3
낙농품	105.3	105.2	109.1	110.6	5.1	1.4
과실 및 채소가공품	123.3	123.9	121.0	120.4	-2.8	-0.5
사료	115.5	117.1	117.2	116.0	-0.9	-1.0
비료 및 질소화합물	103.8	105.0	107.2	111.6	6.3	4.1
살충제 및 농약	101.3	101.3	101.3	102.3	1.0	1.0
농업용 기계	114.4	114.6	115.6	116.6	1.8	0.9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과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9%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분기대비 2.1% 상승함.

● 농산물의 경우,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2.8%, 축산물은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2013		2013-2014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6.7	107.6	107.8	108.8	1.1	0.9
농축수산물	112.3	115.2	107.4	109.7	-4.8	2.1
농산물	119.7	126.1	107.3	110.3	-12.5	2.8
곡물	122.8	126.1	127.6	124.5	-1.3	-2.4
채소	106.1	119.0	86.6	90.0	-24.4	3.9
과실	122.8	123.9	112.9	118.1	-4.7	4.6
기타농산물	164.3	162.6	134.6	140.1	-13.8	4.1
축산물	98.9	96.3	104.2	105.6	9.7	1.3
수산물	110.7	112.5	111.9	113.8	1.2	1.7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4년 1/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곡류와 채소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과일류는 상승함.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2-2013		2013-2014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9.9	131.9	131.2	130.6	-1.0	-0.5
콩(백태)	121.3	128.8	107.0	85.6	-33.5	-20.0
배추	90.0	115.9	51.0	38.6	-66.7	-24.4
무	90.9	60.1	54.3	46.0	-23.4	-15.3
고추(화건)	162.2	141.9	106.3	103.7	-26.9	-2.4
마늘(난지)	90.4	88.8	62.8	63.1	-28.9	0.5
양파	138.6	193.8	105.4	84.8	-56.3	-19.6
사과(후지)	113.1	121.2	119.8	146.1	20.5	21.9
배(신고)	186.4	199.2	109.0	131.7	-33.9	20.8
느타리	98.7	104.4	104.8	100.4	-3.8	-4.2
참깨	114.3	114.4	103.6	105.1	-8.1	1.4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0.5%, 콩(백태)은 전분기보다 20.0% 하락함.

● 2014년 1/4분기 채소 가격은 마늘(난지)을 제외한 배추, 무, 양파, 고추(화건)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4년 1/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21.9%, 배(신고)는 전분기보다 20.8%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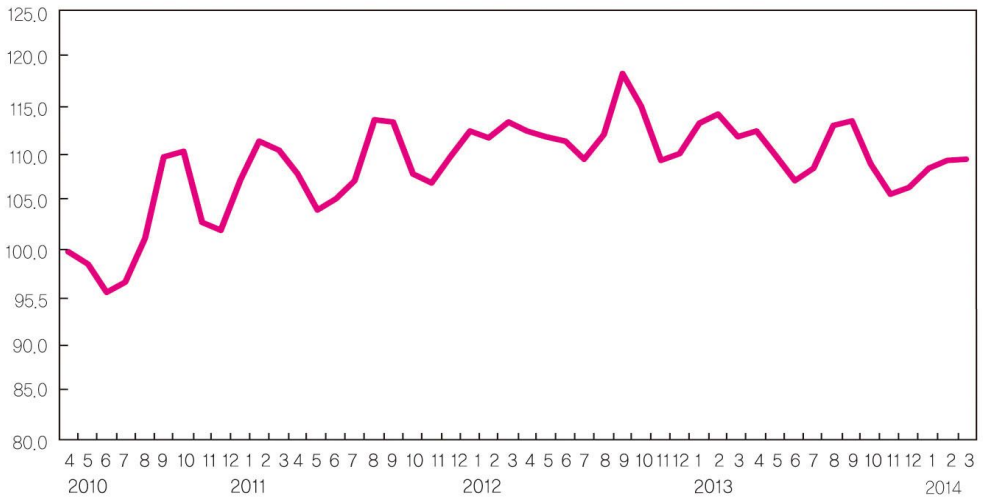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3)]

● 2014년 1/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1.9% 상승함.

- 배추, 무, 양파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쇠고기(국산), 돼지고기, 오이, 토마토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2-2013		2013-2014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5.5	127.6	129.2	127.2	-0.3	-1.5
쇠고기(국산)	90.4	89.4	91.0	92.3	3.3	1.4
돼지고기	99.3	92.7	106.2	108.5	17.0	2.2
닭고기	101.7	104.3	109.2	104.3	0.0	-4.5
사과	138.4	136.9	124.8	123.0	-10.2	-1.5
배추	97.0	120.1	58.5	47.9	-60.1	-18.1
무	84.0	66.0	54.7	44.2	-33.0	-19.1
오이	96.9	152.4	100.1	136.9	-10.2	36.8
토마토	117.5	113.9	101.0	116.4	2.1	15.3
파	107.6	107.5	68.5	61.3	-43.0	-10.5
양파	118.1	162.0	116.0	107.0	-34.0	-7.8
마늘	108.6	110.1	90.6	87.8	-20.3	-3.1

자료: 통계청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1/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5.1로 전년 동기대비 12.2%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 3.8% 상승함.

- 신선채소는 풋고추, 호박 등의 품목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6% 상승함.
- 신선과실은 딸기, 바나나, 귤 등의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7% 상승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2013		2013-2014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3.3	119.7	101.3	105.1	-12.2	3.8
신선어개	108.8	110.4	108.6	110.8	0.3	2.1
신선채소	105.9	119.9	86.2	90.2	-24.7	4.6
배추	97.0	120.1	58.5	47.9	-60.1	-18.1
양배추	112.9	134.6	70.8	58.6	-56.4	-17.2
무	84.0	66.0	54.7	44.2	-33.0	-19.1
당근	135.3	227.3	119.0	81.5	-64.2	-31.6
버섯	106.7	105.9	109.9	111.6	5.4	1.6
풋고추	104.6	143.5	76.0	132.8	-7.5	74.7
호박	101.5	118.8	75.6	115.5	-2.7	52.7
파	107.6	107.5	68.5	61.3	-43.0	-10.5
양파	118.1	162.0	116.0	107.0	-34.0	-7.8
신선과실	122.8	123.9	112.9	118.1	-4.7	4.7
사과	138.4	136.9	124.8	123.0	-10.2	-1.5
배	154.5	169.4	119.8	122.4	-27.8	2.1
귤	125.8	112.7	118.9	123.7	9.8	4.1
딸기	105.4	111.6	83.6	116.3	4.2	39.2
바나나	89.4	111.6	109.9	115.3	3.3	4.9
기타신선	108.3	109.8	90.0	87.4	-20.4	-2.9

자료: 통계청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17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21.6%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14.7% 감소한 730천 명이었고, 여성은 30.9% 감소한 448천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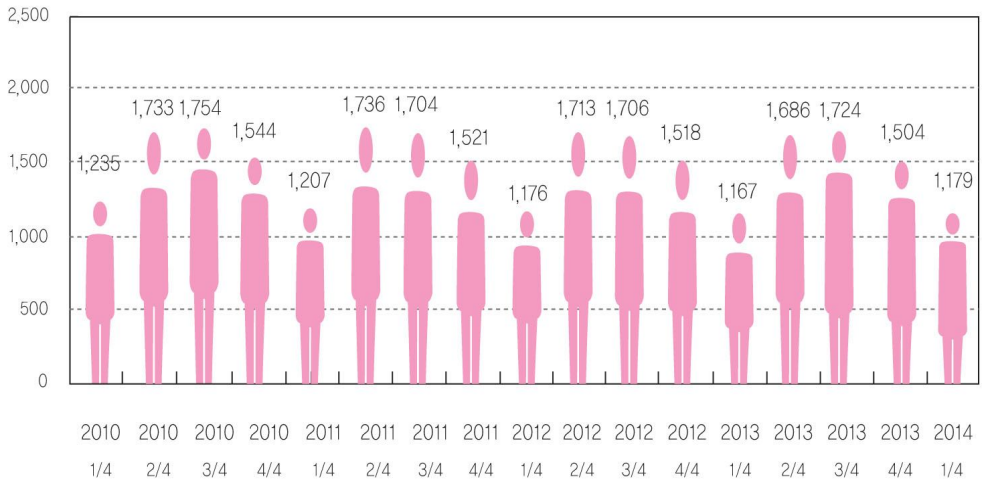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2-2013		2013-2014		증감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취업자	전산업	24,804	24,184	25,346	24,913	3.0	-1.7
	농림어업	1,518	1,167	1,504	1,179	1.0	-21.6
	남성	863	733	856	730	-0.4	-14.7
	여성	655	434	648	448	3.2	-30.9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전체적인 취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18 천 명으로 전분기대비 5.3% 감소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30.0시간으로 전분기대비 20.2% 감소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2-2013		2013-2014		증감률	
	4/4	1/4	4/4	1/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전체	1,518	1,167	1,504	1,179	1.0	-21.6
1~17시간	157	276	156	257	-6.9	64.7
18~35시간	356	362	369	383	5.8	3.8
36시간 이상	982	508	959	520	2.4	-45.8
일시 휴직	24	21	19	18	-14.3	-5.3
주당 평균시간	37.8	29.4	37.6	30.0	2.0	-20.2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4년 1~3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딸기 등의 신선농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맥주 수출이 급등하는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432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김치 등의 채소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출 유망 신선농산물 중 유일한 겨울작물인 딸기, 과실류, 버섯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돼지고기 수출은 증가한 반면 가금육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함.

● 수산물 수출액은 해조류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어류, 갑각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53	1,314	850	1,432	12.9	9.0
농 산 물	555	1,119	645	1,212	16.3	8.3
축 산 물	29	96	25	94	−13.6	−1.6
임 산 물	170	99	180	126	6.1	26.6
수 산 물	182	524	180	485	−1.2	−7.3
전 체	936	1,838	1,031	1,917	10.1	4.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자차, 토마토, 새송이 버섯 등의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배, 딸기, 밤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0.1%, 전월대비 12.9%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수입 동향

● 2014년 1~3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이 증가하여 총 8,4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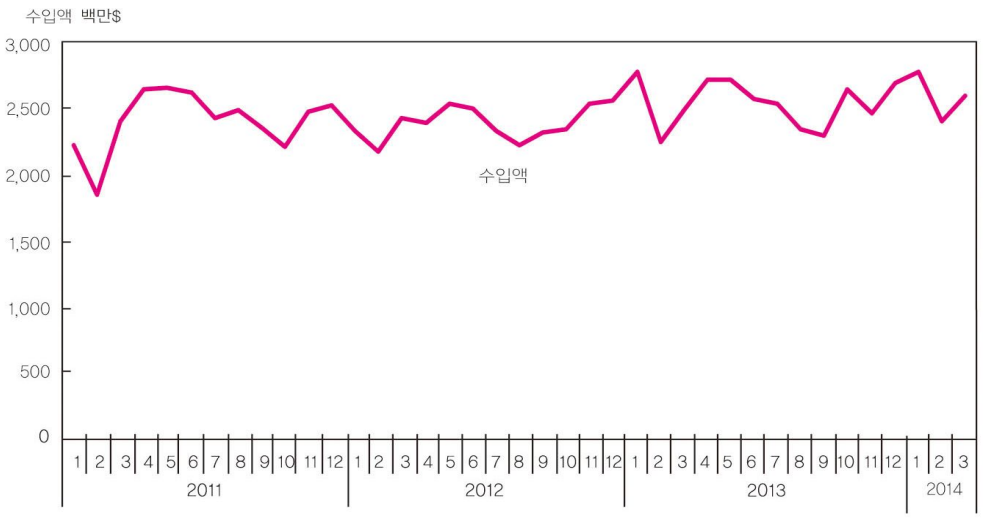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410	7,470	11,882	7,444	4.1	-0.3
농 산 물	7,850	4,860	8,183	4,602	4.2	-5.3
축 산 물	310	1,140	315	1,250	1.7	9.6
임 산 물	3,250	1,470	3,384	1,593	4.1	8.4
수 산 물	1,411	899	1,151	1,032	-18.4	14.8
전 체	12,821	8,369	13,033	8,476	1.7	1.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농산물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2%, 전월 대비 8.2%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3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286백만 달러로 비스킷, 커피 조제품 등의 대형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맥주 수출이 급등하여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78,508	214,343	182,028	213,008	2.0	-0.6
농 산 물	87,834	160,360	85,089	161,476	-3.1	0.7
축 산 물	8,572	34,618	7,959	31,781	-7.2	-8.2
임 산 물	82,102	19,365	88,980	19,750	8.4	2.0
수 산 물	32,983	66,052	33,839	73,098	2.6	10.7
합 계	211,491	280,395	215,867	286,106	2.1	2.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채소류와 화훼류, 낙농품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곡류는 1.2%, 과실류는 7.8%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480	521	450	527	-6.2	1.2
과실류	6,957	11,470	7,611	12,363	9.4	7.8
채소류	629	2,448	214	2,213	-65.9	-9.6
화훼류	940	5,729	358	2,185	-62.0	-61.9
버섯류	0	0	22	49	0.0	0.0
낙농품	2,884	21,150	3,499	19,358	21.3	-8.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3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572,839	1,111,309	1,320,520	999,912	-16.0	-10.0
농 산 물	1,029,386	735,866	722,589	571,241	-29.8	-22.4
축 산 물	6,298	19,652	6,662	21,246	5.8	8.1
임 산 물	537,156	355,791	591,269	407,426	10.1	14.5
수 산 물	330,949	263,570	206,908	284,750	-37.5	8.0
합 계	1,903,788	1,374,880	1,527,428	1,284,662	-19.8	-6.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3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3억 2,862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함. 이는 김치, 인삼 등 신선식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저도주 선호에 따른 맥주 수출 증가와 담배 수요 증가로 인한 궐련 수출 호조로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과실류는 배, 포도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7.2% 감소함.
- 채소류는 김치, 토마토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함.
- 화훼류는 장미, 백합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7.1%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92,652	300,963	243,592	328,628	26.4	9.2
곡류	2,782	2,130	1,911	1,475	-31.3	-30.8
과실류	2,728	7,235	2,198	5,989	-19.4	-17.2
채소류	10,686	47,264	16,817	42,693	57.4	-9.7
화훼류	1,113	9,230	674	4,886	-39.4	-47.1
버섯류	159	550	163	524	2.3	-4.8
낙농품	550	2,246	475	2,672	-13.6	19.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3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6,753	107,434	160,121	108,924	50.0	1.4
농 산 물	14,290	71,666	15,005	59,465	5.0	−17.0
축 산 물	8,344	11,260	9,935	12,096	19.1	7.4
임 산 물	84,120	24,508	135,182	37,363	60.7	52.5
수 산 물	10,584	30,409	21,956	20,724	107.4	−31.8
합 계	117,337	137,843	182,077	129,648	55.2	−5.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3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억 3,40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함. 이는 곡류와 채소류, 낙농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 화훼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5,952	123,471	52,388	134,068	14.0	8.6
곡류	1,605	1,662	1,346	1,535	−16.1	−7.6
과실류	1,625	3,029	2,335	5,674	43.7	87.3
채소류	1,583	10,086	1,772	5,879	11.9	−41.7
화훼류	17	314	28	408	70.0	29.9
버섯류	851	1,671	799	1,777	−6.1	6.3
낙농품	1,355	1,474	1,074	1,239	−20.8	−15.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채소류는 딸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채소종자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41.7% 감소함.
- 과실류는 사과, 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7.3% 증가함.
- 버섯류는 양송이버섯, 팽이버섯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2014년 1~3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861,196	1,698,406	2,514,087	1,883,280	35.1	10.9
농 산 물	1,339,157	1,085,371	2,071,245	1,213,909	54.7	11.8
축 산 물	108,143	388,642	112,835	452,702	4.3	16.5
임 산 물	413,896	224,393	330,007	216,669	-20.3	-3.4
수 산 물	16,788	49,283	17,495	51,951	4.2	5.4
합 계	1,877,984	1,747,689	2,531,582	1,935,231	34.8	10.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3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럽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2.6% 감소한 6,170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4.0%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

【 대EU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3,509	79,744	32,688	61,700	−2.4	−22.6
농 산 물	32,213	74,834	31,235	56,894	−3.0	−24.0
축 산 물	138	2,447	87	2,512	−36.8	2.7
임 산 물	1,158	2,463	1,367	2,294	18.0	−6.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3월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한 7억 8,912만 달러임.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3. 1~3		2014. 1~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10,615	676,181	469,697	762,018	14.4	12.7
농 산 물	260,242	388,234	286,049	412,962	9.9	6.4
축 산 물	51,585	209,298	61,206	251,829	18.7	20.3
임 산 물	98,788	78,648	122,441	97,227	23.9	23.6
수 산 물	4,377	22,876	5,295	27,110	21.0	18.5
합 계	414,992	699,056	474,991	789,128	14.5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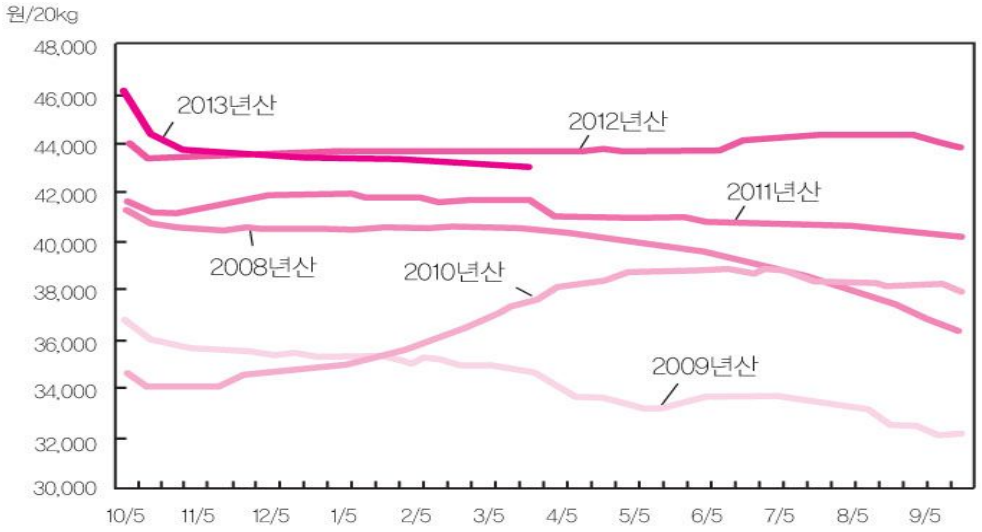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4)]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1/4분기 동향

- 2013년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확기 매입량 증가와 쌀 판매 부진으로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보다 많은 수준이 유지되었고, 쌀 가격은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 2월 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의 재고량도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3월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평균대비 1.8% 하락한 20kg당 4만 3,016원으로 전년 대비 1.2% 낮은 수준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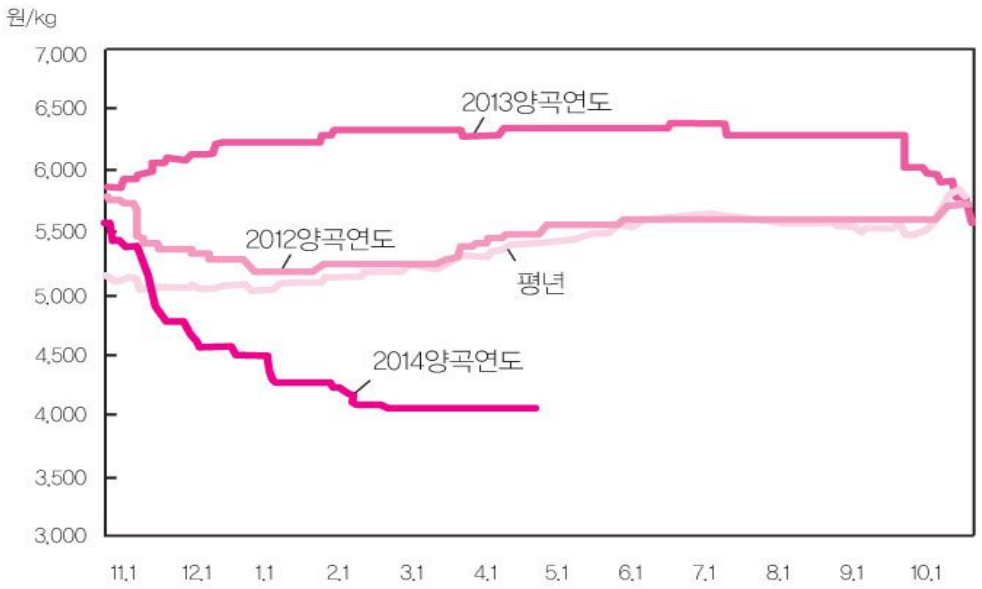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대석(sorihunt@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re.kr),이동주(djlee@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한 산지 쌀 가격은 4월 평균 20kg당 4만 2,766원으로 전년과 수확기 가격대비 하락폭이 각각 1.8%, 2.4%로 확대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2만 6천 ha로 전년대비 0.8%(7천 ha) 감소함. 이는 지난(2014년 1월 초) 조사치보다 5천 ha 감소한 수준으로 수확기에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된 쌀 가격이 2013년 말 전년 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2014양곡연도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0.5%(2만 2천 톤) 증가한 417만 9천 톤으로 전망됨. 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2014양곡연도 식용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량 증가로 2014양곡연도 단경기 산지 쌀 가격은 3% 이상의 역계절진폭이 예상되며, 2/4분기 산지 쌀값은 현시세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분기 동향

- 2013년산 국산 콩 생산량 증가와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채택으로 대기업이 국산 콩 수요를 줄이면서 수확기 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 국산 콩의 4월 30일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5.7%. 평년대비 24.1% 하락한 4,057원/kg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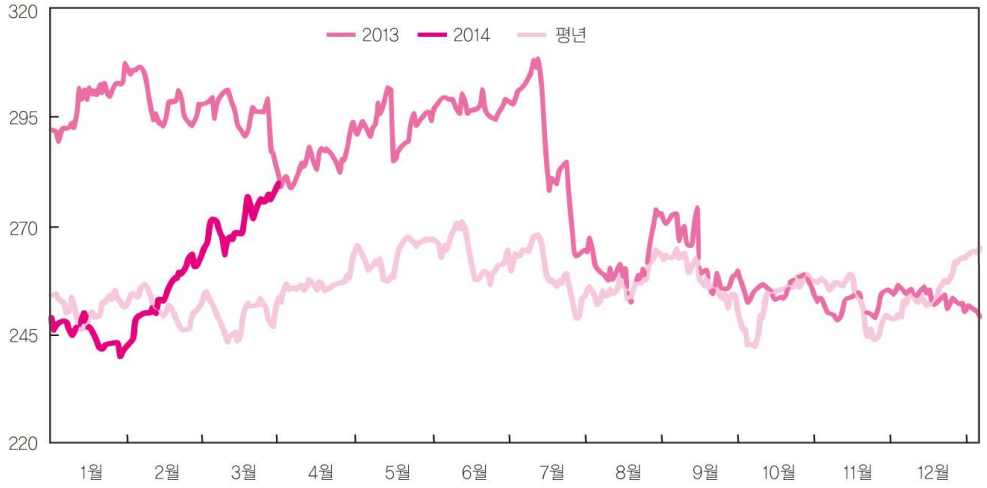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매입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재고가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공공비축물량 8,900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기업이 국산 콩 구매를 작년보다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재고물량과 수요 감소로 향후 국산 콩 도매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3.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단위: 2000년 1월 = 100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 1/4분기 동향

- 1/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밀, 옥수수, 콩, 쌀 교역량 가중평균)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급악화로 전 분기 대비 1.4% 상승
- 옥수수, 콩 선물가격은 남미지역 기상악화(가뭄/호우)로 생육상황이 악화되어 전분기 대비 각각 4.9%, 3.9% 상승하였음.
- 밀 선물가격은 호주, 캐나다, 미국의 작황호조로 인해 전 분기대비 5.7% 하락하였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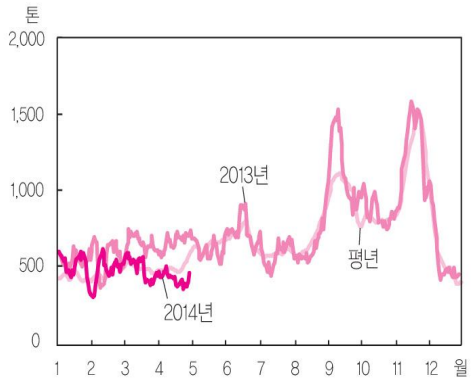
- 세계 주요 곡물 총생산량은 전년(2012/13) 대비 8.4% 증가한 24억 4,350만 톤, 기말재고율은 2.4%p 상승한 24.1%로 예상됨. 하지만 소비량 증가로 인해 기말재고율이 전 분기 전망치 대비 1.9%p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곡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밀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북반구 주요 수출국(미국,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상악화,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2%p 감소한 수준임
- 세계 콩 생산량은 주요 수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상악화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1%p 감소한 수준임.
- 2/4분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2014/15년 밀 생산량은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4분기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여부와 기상요인에 의해 변동할 것으로 보임.

2. 엽근채소[5)]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64%, 55% 낮았음.
- 겨울철 기상 양호로 인해 단수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가격은 1월 3,940원에서 3월 2,720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 (2014) 3,280원/10kg, (2013) 9,200원/10kg, (평년) 7,230원/10kg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배추 출하량은 봄배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4% 내외 감소하지만 겨울배추 저장량이 크게 많아 작년보다 30% 내외 많을 전망임.
-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저장량이 많고 본격적인 봄배추 출하로 작년보다 크게 낮고 1분기 대비 하락세 지속될 전망임.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이금호(leekumho@krei.re.kr), 권희민(romeo@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4~5월 배추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크게 낮고, 6월은 작년 동월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임.
* 다만, 5~6월 기상 변화에 따른 봄배추 단수 변화로 가격 수준은 유동적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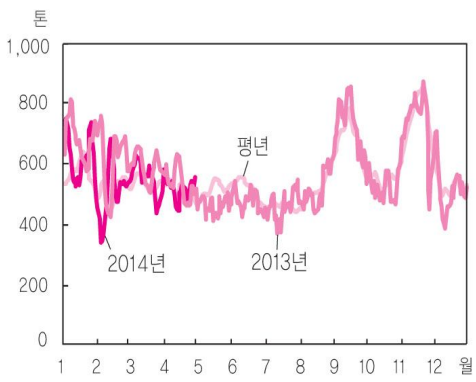
● 2014년 봄배추 생산전망

- 2014년 봄배추 재배면적은 정식기 가격이 낮고 포전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9%, 2% 감소한 2천 9백 ha 가량으로 추정됨.
- 추정 단수를 적용한 봄배추 추정생산량은 28만 톤으로 작년보다 4%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설봄배추 재배면적: 602ha(작년 대비 23%, 평년 대비 23% 감소)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 2,294ha(작년 대비 5% 감소, 평년 대비 6% 증가)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월동무 재배면적과 단수가 양호하여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6%, 29% 낮았음.
- 기상이 좋아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과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수급안정대책과 학교 급식수요 등으로 3월에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음.

* (1월) 5,059원/18kg, (2월) 5,522원, (3월) 6,730원
* (2014 1/4분기) 5,770원/18kg, (2013 1/4분기) 9,014원, (평년 1/4분기) 8,132원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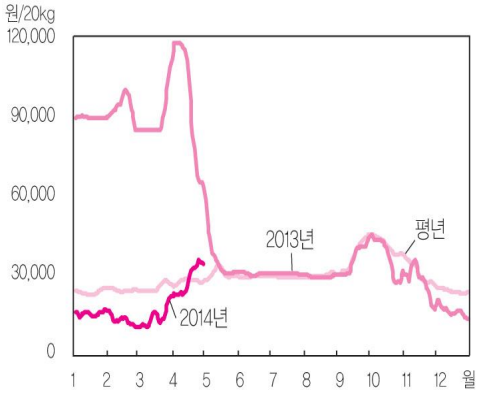
- 월동무 저장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월동무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월동무 저장량은 작년 대비 약 40% 증가 전망임.
- 2/4분기 봄무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많았던 작년보다 감소하고 평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월동무 저장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임.
  * 월동무 저장량이 많고 저장출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4, 5, 6월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임.

● 2014년 봄무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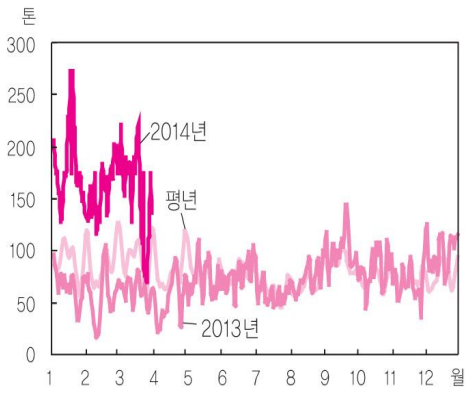
- 금년 봄무 재배면적은 파종기 가격 약세와 출하기 가격 약세를 우려하여 작년보다 7% 감소하고, 평년보다는 7% 증가한 1,420ha 가량으로 추정됨.
  * 시설봄무 재배면적: 137ha(작년대비 14%, 평년대비 28% 감소)
  * 노지봄무 재배면적: 1,284ha(작년대비 7% 감소, 평년대비 14% 증가)
- 평년 단수를 적용한 봄무 추정 생산량은 12만 3천 톤으로 작년보다 12% 적으나 평년보다는 7% 많을 전망임.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도매가격은 제주산 겨울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품 20kg당 1만 4,705원으로 보합세를 지속함. 이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4%, 41%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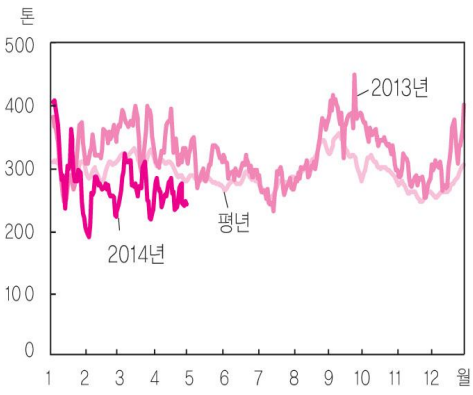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당근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이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 기준으로 작년과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도매가격은 2월 중순 이후 구가 크고 상품성이 우수한 중만생종 양배추 출하비중이 증가하였고, 3월 하순 이후 전남·제주지역 만생종 양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하락함.

  *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013원으로 이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6%, 61%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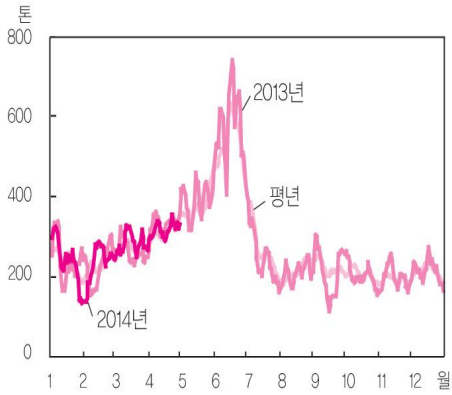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3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겨울양배추 저장물량 증가와 봄양배추 출하면적 증가로 2/4분기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2.5. 감자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감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저장고랭지감자의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23%, 평년 동기보다 38% 낮은 상품 20kg당 1만 8,490원이었음
- 2/4분기 대지 도매가격은 제주지역의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10%, 평년 동기보다 22% 낮은 상품 20kg당 3만 2,160원이었음

●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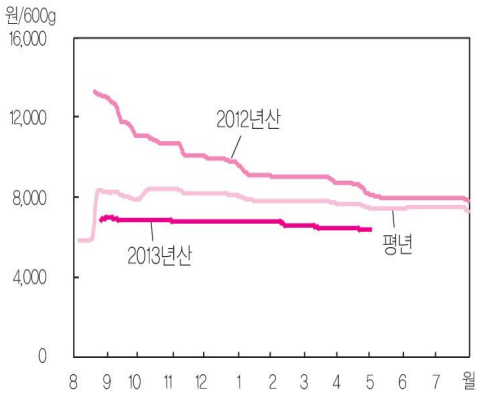
- 노지봄감자 생산량은 작년보다 9%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23% 증가한 52만 톤으로 전망됨.
  *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6% 증가한 18,706ha로 추정됨.
  * 노지봄감자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16% 증가한 2,782kg/10a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14%, 11% 감소한 3,255ha로 전망됨.
  * 평년단수를 고려할 경우, 금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11% 감소한 10만 5천 톤으로 추정됨.

● 2/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시설봄감자와 노지봄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소비가 부진하여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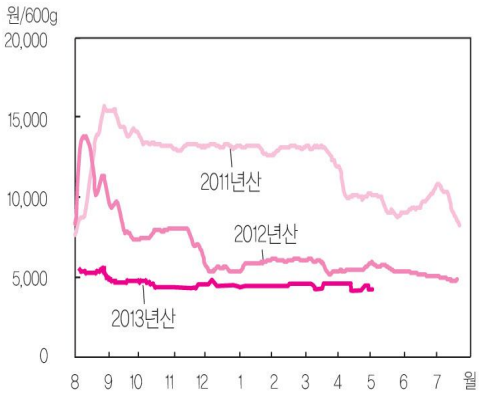
3. 양념채소[6)]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주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2: 평년 도매가격은 2008년 8월~2013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 1/4분기 수급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7% 낮은 6,66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24% 낮은 4,750원 수준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6,664원/600g → (전년) 9,120 → (평년) 7,883
  * 산지가격: (금년) 4,746원/600g → (전년) 6,214
- 이는 2012년산 이월 재고가 많았고, 2013년산 고추 정식기(4~5월) 이후 기상여건 양호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이 많았기 때문임.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건고추 3월 말 농가 보유량은 2013년산 생산량의 4% 인 4,110톤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농협 재고량은 전년 동월보다 2.5배 많은 1만 2,820톤임.

● 2/4분기 전망

- 국내산 재고량이 많아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2013년 2/4분기(8,270원/600g)와 평년(7,590원)보다 낮을 것이며 2014년 1/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산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2013년산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재배방식별로는 노지(멀칭 · 터널)재배가 전년보다 13% 감소하나, 비가림(하우스)재배는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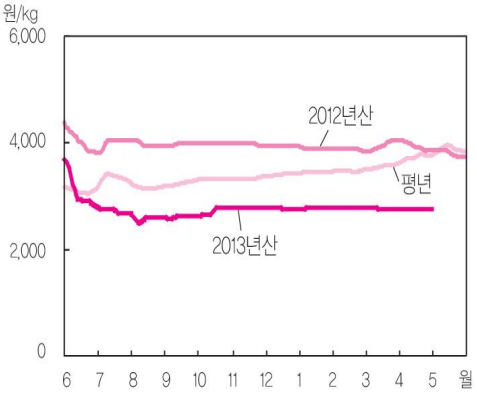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경기·강원	−10.7	2.4	−10.5
영남	−11.6	1.9	−11.5
호남	−15.7	0.1	−15.4
충청	−12.6	0.4	−12.0
전 체	−13.0	1.1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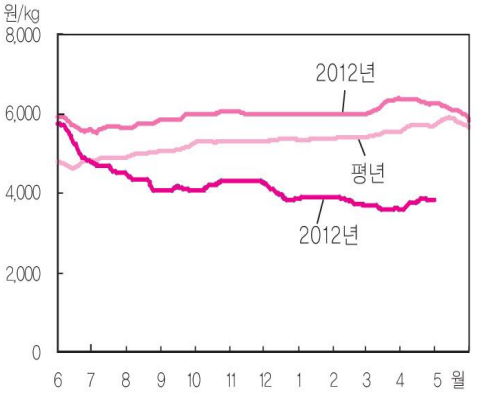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18일 표본농가 조사치.

3.2. 마 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8년 5월~2013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분기 동향

- 국내산 마늘 재고량 증가로 1/4분기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29%, 20% 낮고, 깐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8%, 평년보다 30% 낮음.
  * 난지형: (금년) 2,768원/kg, (전년) 3,894원/kg, (평년) 3,480원/kg
  * 깐마늘: (금년) 3,770원/kg, (전년) 6,076원/kg, (평년) 5,420원/kg
- 2013년산 국내산 저장마늘 출고량이 많고,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1/4분기 마늘 수입량이 증가함.
  * 냉동마늘 수입량: (금년) 9,520톤, (전년) 7,899톤, (평년) 7,150톤

● 2013년산 마늘 저장동향

- 4월 말 기준, 2013년산 저장마늘 출고량은 전년보다 3% 많은 9만 2천 톤이고, 감모율(10%)을 감안한 재고량은 3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9천 톤 많음.
- 정부가 수매·비축한 2013년산 12,361톤 중 방출 및 가공량을 제외한 통(피)마늘 재고량은 9,378톤이고, 마늘 전체 재고량 가운데 약 70%를 농협이 보유하고 있음.

【 2013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3	130,269	91,741	3,919	34,609
2012	105,314	88,717	1,373	15,224
증감률	23.7	3.4	185.5	127.3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3년산 10.2%, 2012년산 8.3%)을 적용하였고, 재고량에는 정부가 수매·비축한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1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4년산 생산량 추정

- 2014년산 마늘 생육은 동해의 영향을 받았던 전년보다 양호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4년산 마늘 전년 동기 대비 생육은 '좋음' 46%, '비슷' 43%, '나쁨' 11%로 나타남.
- 예상단수는 5월 기상여건이 좋았던 전년보다 3% 감소하나 평년보다 9% 많은 10a당 1,370kg으로 전망됨.

【 2014년산 마늘 예상단수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형	-2.6	-	0.7	-	-0.9
난지형	1.4	2.1	-3.1	-11.7	-2.8
전 체	-0.7	2.1	-2.4	-11.7	-2.5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18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농업관측센터 예상단수를 적용한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적으나 평년보다 4% 많은 34만 3천 톤으로 전망됨.
  *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25,062ha(통계청, 4월 29일)

【 2014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

단위: ha, kg/10a, 천톤,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2014	25,062	1,370	343.3
2013	29,352	1,405	412.3
평년	26,177	1,262	330.5
전년 대비	-14.6	-2.5	-16.7
평년 대비	-4.3	8.6	3.9

자료: 통계청, 2014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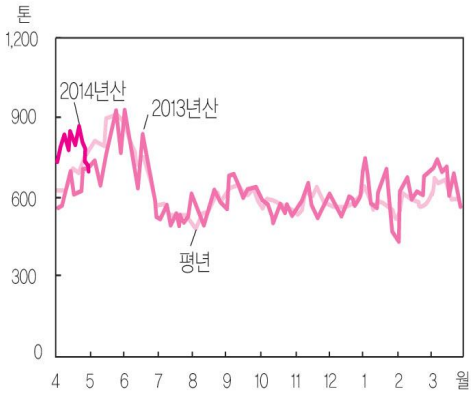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마늘 재고량이 많아 2/4분기 마늘 가격은 평년 대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 2013년산 마늘 재고량이 많고 햇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 2014년산 마늘 수확기(6~7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임.

3.3. 양 파

【 도매가격 동향 】

【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 4월~2014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2%, 25% 낮은 673원임.
  * (금년) 673원/kg → (전년) 1,779원 → (평년) 894원
- 1/4분기 양파 저장량이 많아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임.
- 4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72%, 40% 낮은 658원임.
  *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출하량이 많음.

● 2014년산 양파 생산 전망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2만 3,908ha로 확정 발표됨(통계청, 4.29).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 】

단위: ha, %

2014	2013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3,908	20,036	21,038	19.3	13.6

자료: 통계청.

- 2014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57% 많으나, 평년보다 12% 적은 13만 톤으로 전망됨.

* 조생종 재배면적은 1,930ha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21% 감소, 10a당 수확량은 6,718kg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12% 증가

【 2014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

단위: ha, kg/10a, 천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		1,930	6,718	129.7
2013		1,447	5,716	82.7
평년		2,438	6,027	147.0
증감률	전년	33.4	17.5	56.8
	평년	−20.8	11.5	−11.8

주: 2014년산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 2014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17% 많은 145만 5천 톤으로 전망됨.

* 중만생종 재배면적은 21,978ha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16% 증가, 10a당 수확량은 6,618kg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 1% 증가

【 2014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

단위: ha, kg/10a, 천톤, %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		21,978	6,618	1,454.6
2013		18,589	6,516	1,211.3
평년		18,944	6,539	1,238.7
증감률	전년	18.2	1.6	20.1
	평년	16.0	1.2	17.4

주: 2014년산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 정식 이후 겨울·봄철의 평균 기온 상승과 적절한 강우로 4월 중순까지의 중만생종 양파 생육속도는 빠르고, 작황도 양호함. 4월 하순 주산지에 2~3일 이상 비가 내려 5월 상순 기온이 높아질 경우 습해 및 노균병 확산 피해로 작황이 다소 부진해 질 수 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5~6월 공급량은 150만 3천 톤으로 2013년과 2012년보다 각각 18%, 33% 많은 수준임.

【 5~6월 양파 공급량 추정 】

단위: 천톤, %

구분		생산량	수입량	합계
2014년		1,499	3	1,503
2013년		1,257	18	1,275
2012년		1,123	4	1,127
증감률	2013년	19.3	-83.0	17.8
	2012년	33.5	-15.8	33.3

주: 2014년산 생산량 중 조생종은 생산조정 및 자율 감축되는 4만 톤을 제외하였으며, 수입량은 평년수준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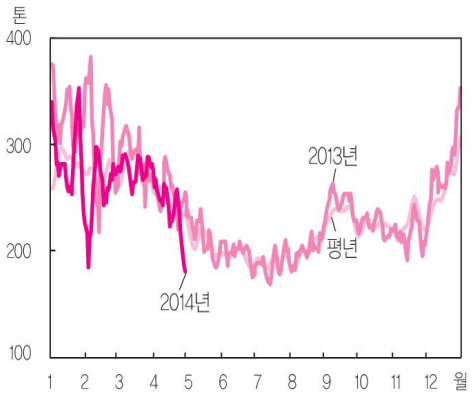
- 양파 공급량이 많아 5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조생종 출하가 많은 5월 상순가격은 4월 하순과 비슷한 700원/kg으로 예상됨.

- 조생종 출하가 완료되고 중만생종 출하가 시작되는 5월 중·하순 가격은 600원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만생종이 출하량이 많아 6월 가격은 5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2013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006원(중품 818원)으로 전년 1,857원 보다 32% 낮고 평년 1,490원 보다 46%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1,006원/kg → (전년) 1,857원 → (평년) 1,490원
  * (1월) 1,017원/kg → (2월) 1,033원 → (3월) 975원 → (4월) 819원
- 작년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였으나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함.
-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안·진도지역의 지연 출하로 낮은 품위의 대파가 지속적으로 출하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음.
- 국내산 대파 가격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1~4월 대파 총 수입량은 전년 26,540톤에서 금년 17,750톤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음.

* (금년) 17,753톤 → (전년) 26,539톤 → (평년) 20,019톤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대파 재배의향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단수 증가율이 재배의향 감소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 하락 폭은 크나 대부분의 대체작목의 가락도 하락한 상황이어서 재배의향면적은 소폭 감소하여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에는 경기지역 시설 및 노지대파와 전북지역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등 출하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출하량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파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작황은 양호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산 대파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2/4분기 대파 총 수입량은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임.
- 대파 2014년 2/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상품 1,875원/kg)보다 크게 낮으나 1/4분기(상품 1,006원/kg)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5.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1/4분기 특징

- 건고추는 육모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가정용 건고추는 수확기와 김장시기에 대부분의 구매가 이루어져, 1/4분기에는 가정용 수요는 많지 않고 가공과 외식, 급식용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임.
- 조생 양파가 3월 중하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년산 저장 양파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마늘 역시 전년산 저장 마늘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임.
- 1/4분기는 전남 신안과 진도의 겨울대파가 전국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로 전남 남해안 산지의 작황이 전국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4분기 양념채소 전망

- 건고추는 농가 보유량은 많지 않으나, 정부·농협·민간업체의 재고량이 많아 수확기까지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건고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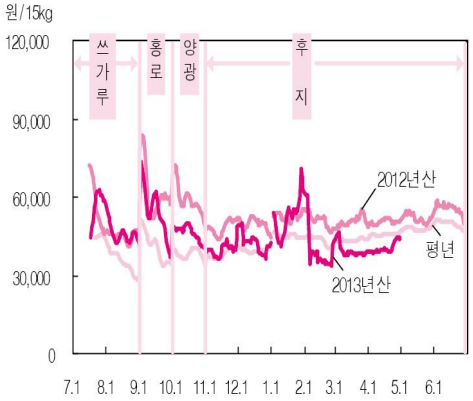
의 2014년산 건고추 재배의향은 13% 감소했으나 재고량의 규모가 커 수확기 이후에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 2013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19천톤 많은 수준이나 정부가 약 1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2/4분기 내에는 방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마늘 재고량이 많아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양파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도 양호하여 평년수준보다 크게 많은 약 150~160만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어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조생종 출하가 종료되고 중만생종 출하가 본격화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음.
- 대파는 전남 남해안지방의 대파가 4월까지 출하되어, 전북지역의 출하량은 5월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4월에는 상품성이 저하된 겨울대파의 출하량이 많아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전북지역 물량과 경기도 시설 물량이 함께 출하되는 5월 상순까지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경기지역 대파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작황도 양호하여 가격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호남지역 출하가 종료되는 5월중순부터는 소폭 반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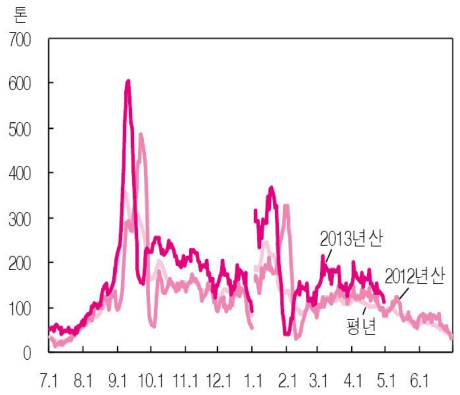
4. 과일[7)]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5% 낮았음. 이는 2013년산 사과 생산량이 많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53% 많았기 때문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29% 많아 상품 15kg 상자에 4만 1원으로 전년보다 19% 낮았음.
- 5월 이후 남아있는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18%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2014년 사과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만 300ha 수준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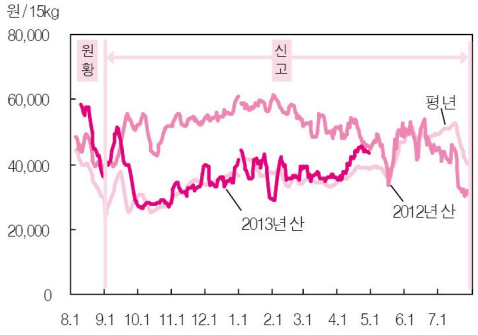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망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와 과원갱신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하였지만,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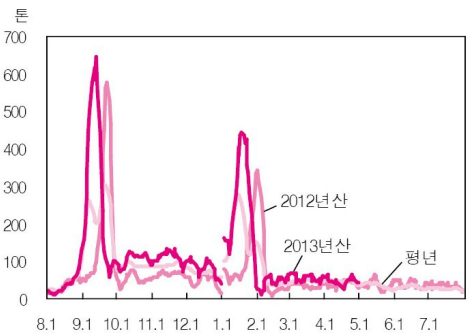
- 품종별로는 착색계후지(미시마, 미야마, 기쿠8)가 전년보다 4% 증가하였으나, 일반후지(동북 7호)와 조숙계후지(료카, 히로사키, 홍장군)가 전년보다 각각 3%, 5% 감소하여 전체 후지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홍로는 출하시기가 추석 무렵으로 시세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반면, 양광은 봉지재배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8천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30% 가량 낮았음. 이는 작황 양호로 2013년산 생산량이 많아 1~3월 반입량이 전년 대비 87% 많았기 때문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7%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10% 높았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15% 가량 증가했기 때문임.

- 5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45%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됨. 가격은 전년보다 낮지만, 저장성 저하로 품위가 낮아져 등급간 가격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재배면적 추정

- 2014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3,400ha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3%, 유목면적은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4.3. 감귤

【 감귤(노지온주)도매가격 동향(상품) 】

【 감귤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은 2만원, 2월 2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34%, 33%, 높았음. 이는 1~3월 가락시장 반입량이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생산량 감소로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올해 감귤 재배면적은 2만 500ha로 전년보다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2% 감소한 반면,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각각 1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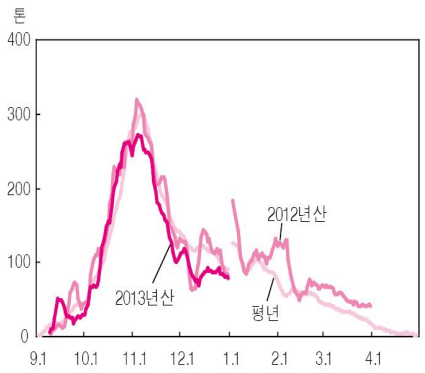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만감류 중 한라봉은 최근 가격이 좋지 않아 면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천혜향과 레드향은 오렌지 수입 증가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기호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각각 17%,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1/4분기 부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에 1월은 4만원, 2월 3만 6천원, 3월 4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9%, 2%, 21% 높았음. 이는 1~3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14% 적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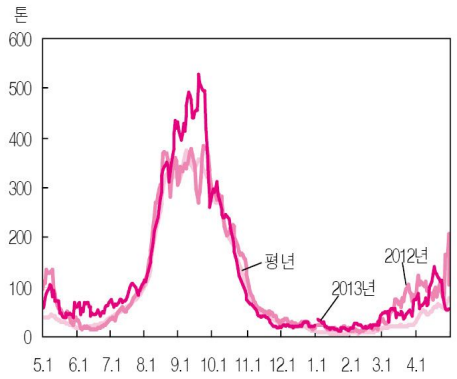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 올해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폐원 등으로 작년보다 2% 감소한 1만 3천 ha 수준으로 전망됨.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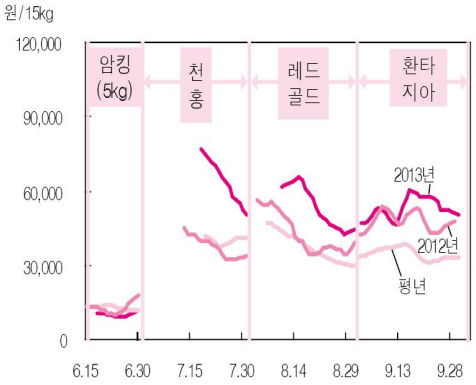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재배면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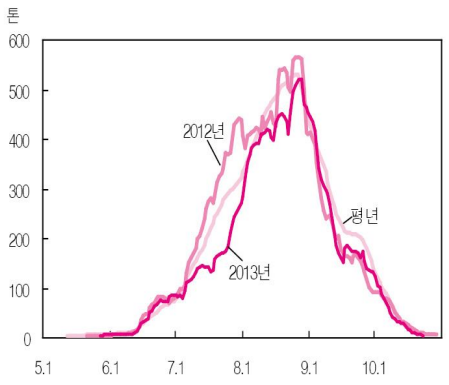
- 2014년 포도 재배면적은 1만 6,800ha 수준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재배형태별로는 노지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하였으나, 시설재배면적은 신규시설 증가와 함께 노지재배에서 시설로 전환하는 농가가 있어 전년보다 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시설재배면적 가운데 가온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고, 무가온 면적은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가온시설재배의 경우 유류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출하기에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포도와의 경합 등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무가온 면적은 신규 재배면적의 증가와 가온재배에서 무가온재배로 전환하는 과원 증가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4.6. 복숭아

【 복숭아 천도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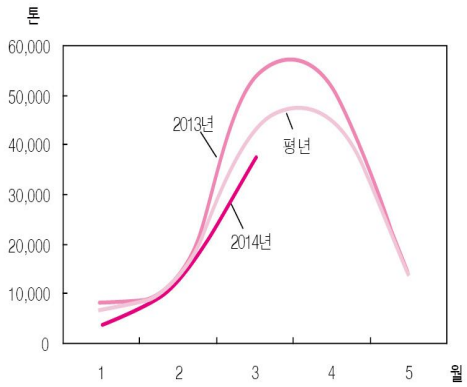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재배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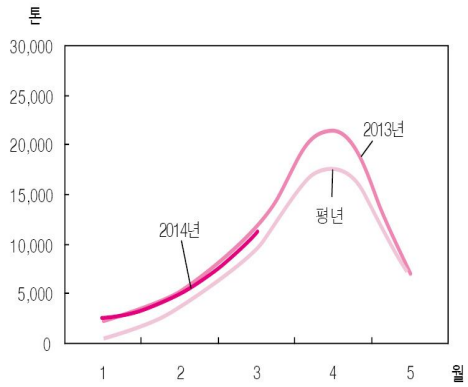
- 2014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1만 4,800ha로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복숭아 가격 호조로 신규 식재가 늘고 동해로 인한 보식이 이뤄져 전년보다 7% 증가한 5천 ha 내외이며, 성목면적은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천도계가 2% 감소한 2,800ha로 전망되며, 숙기별로는 조·중·만생종 모두 전년보다 1~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유모계 재배면적은 1만 2천 ha로 전년보다 2% 증가한 가운데, 조생종과 중생종은 전년보다 각각 4%, 2% 증가한 반면, 만생종은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4.7. 수입과일 동향

【 오렌지 수입량 】



【 포도 수입량 】



주: 평년은 2009~13년 월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4분기 수입과일 동향

＊ 오렌지·포도

- 1/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 현지 한파('13. 1)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8% 적은 5만 3천 톤 수준이었음. 1/4분기 평균수입단가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37% 높았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도 25% 상승하였음.
- 포도 1/4분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9천 톤 수준이었으며, 수입단가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도매가격은 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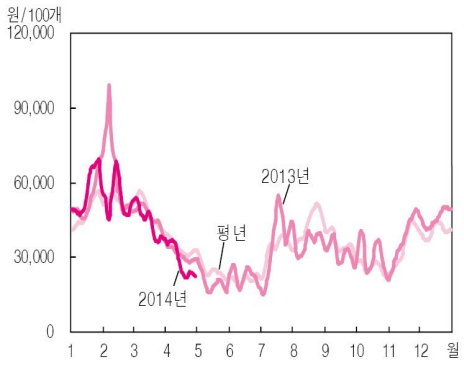
＊ 바나나·파인애플

- 1/4분기 바나나 수입은 필리핀의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전년에 비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단가는 여전히 높아 전년보다 22% 상승하였으며, 도매가격도 4% 높았음.
- 파인애플 1/4분기 수입량은 필리핀의 저온 현상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한 1만 6천 톤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15%, 도매가격은 20%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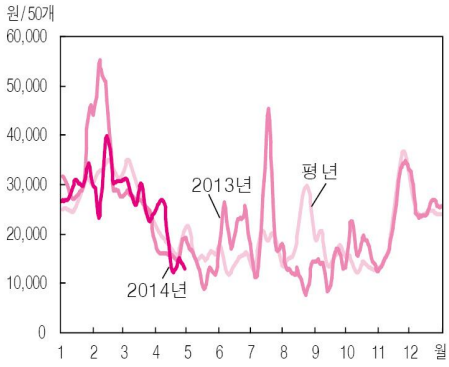
5. 과채[8)]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5만 7,300원, 2월 5만 3천원, 3월 4만 4,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5만 1,5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6%, 2% 높았음.
- 1/4분기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많은데, 경북 상주에서는 기존 농가의 재배규모 확대로 면적이 증가하였고,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에서도 정식시기가 앞당겨져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음. 또한, 생육 상황이 양호해 1~3월 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22%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월 3만원, 2월 3만 1,100원, 3월 2만 7,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 각각 11%, 2% 낮은 2만 9,5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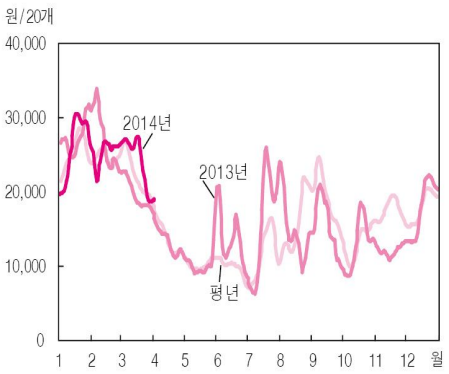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이장은(leeje@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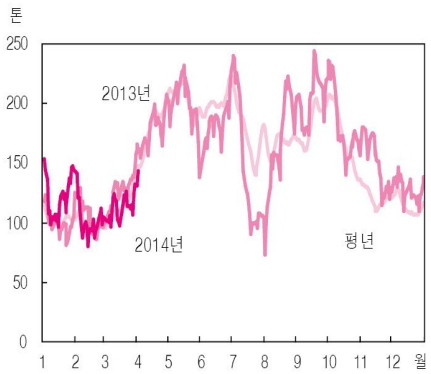
- 4월 백다가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2만 8,600원으로 작년보다 8%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4~5월 출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지역에서도 정식이 확대되어 여름철 출하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만 8,800원으로 작년보다 15% 높았음.
- 취청오이는 호남지역의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만 6,400원, 2월 2만 5,100원, 3월 2만 4,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만 5,3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2%, 3% 높았음.
- 1~3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3% 적었는데, 이는 주산지인 경남 진주에서 작년 정식기 재배가 증가하였으나, 조기정식으로 인한 조로현상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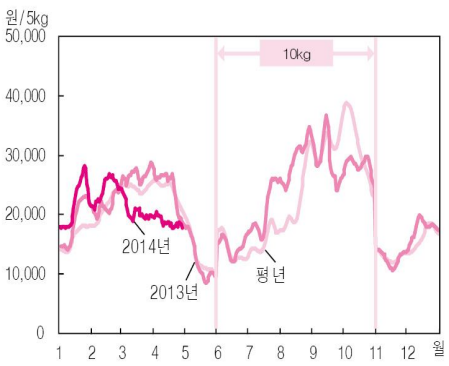
바이러스 확산으로 출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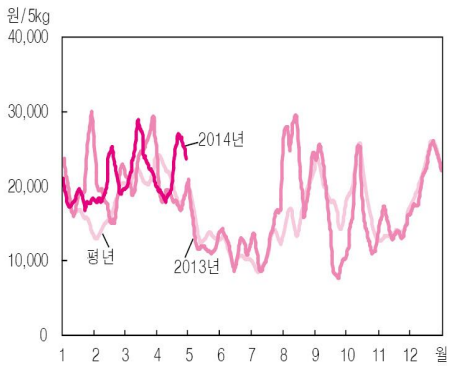
- 4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만 5,900원으로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18% 높았음.
- 2/4분기에는 영남지역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지만 충청지역의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출하 감소폭은 줄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 2만 1,900원, 2월 2만 4,500원, 3월 2만 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만 2,300원으로 작년과 비슷했고, 평년보다는 8% 높았음.
- 1/4분기 일반토마토 1~3월 평균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5%, 52% 많았음. 이는 촉성재배 주산지인 영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 1만 8,200원, 2월

2만 700원, 3월 2만 3,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00원으로 작년보다 2% 낮았고, 평년보다는 14% 높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월 1만 6,900원, 2월 2만원, 3월 2만 1,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500원으로 작년보다 5% 높았음.
- 1/4분기 전체 방울토마토 1~3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7%, 17% 많았음. 이는 촉성재배 주산지인 충청·호남에서 신규 시설면적 확대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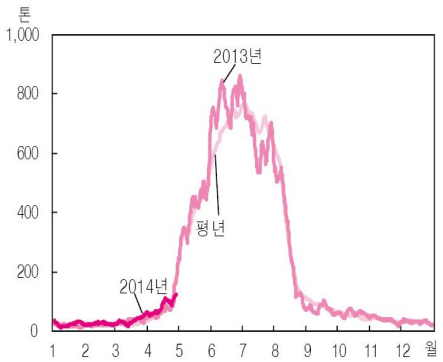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1만 8,700원으로 작년(2만 4,300원)보다 23% 낮았음. 반입량은 영남·호남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31% 많았음.
- 4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2만 1,700원으로 작년(1만 8,700원)보다 16% 높았음. 대추형은 3kg 상자에 1만 8,800원으로 작년(1만 9천원)보다 1% 낮았음. 원형과 대추형을 포함한 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작년보다 10% 많았음.
- 2/4분기 일반토마토는 여름재배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한 영남, 호남, 충청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지고, 조기정식이 많이 이루어진 강원에서도 출하가 시작되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2/4분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방울토마토는 원형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대추형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2/4분기 원형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대추형 방울토마토 정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4분기 가격은 충청·호남지역의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 증가로 대추형은 작년보다 낮겠으나, 원형은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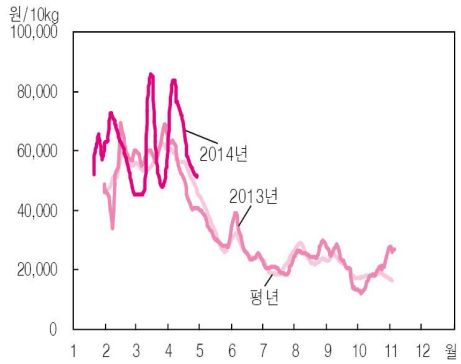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2,680원, 2월 2,394원, 3월 2,389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488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각각 14%, 13% 낮았음.
- 1/4분기 반입량은 작년의 높은 수박가격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7% 많았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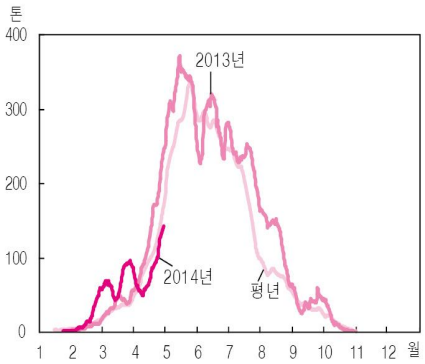
- 4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2,684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12% 높았고, 반입량은 2,200톤으로 작년보다 10% 많았음.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이 높았던 것은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와 소비 확대 때문임.
- 수박 출하량은 채소 등 타 작목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박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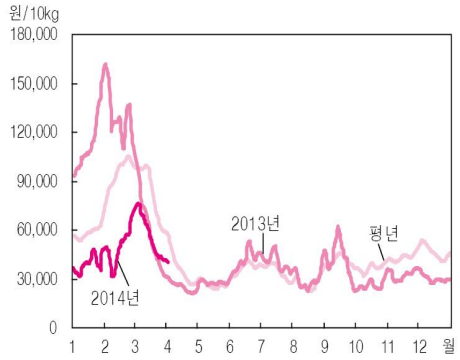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월 6만 1,800원, 3월 5만 7,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5만 9,5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 7% 높았음.
- 1/4분기 반입량은 작년보다 73% 많았음. 이는 금년 참외 조기정식과 기상호조로 참외 출하가 앞당겨져 3월 물량이 작년보다 61% 증가했기 때문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상자에 6만 5,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28%높았고, 반입량은 2,100톤으로 작년보다 37% 적었음.
- 전체 참외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참외 주산지 기상호조가 이어질 경우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3만 8,500원, 2월 4만 9,500원, 3월 5만 7,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4만 8,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3%, 39% 낮았음.
- 청양풋고추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출하면적이 확대되었고, 겨울철 작황도 좋아 1~3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23% 많았음.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7만 6,600원, 2월 8만 6,100원, 3월 7만 1,4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7만 8천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9% 높았음.
- 일반풋고추 1~3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겨울철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7%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5% 적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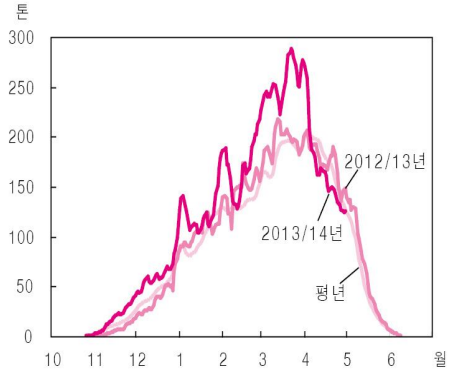
- 4월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8,4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1%, 4% 높았음. 4월 일반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5만 5,6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1%, 40% 높았음.
- 2/4분기는 강원지역의 정식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 청양풋고추에 대한 정식의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풋고추에 대한 정식의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청양풋고추 정식면적은 강원 인제, 횡성에서의 신규시설면적의 확대와 타 품종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져 작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5월에는 강원 홍천, 횡성에서 작목 전환할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식의향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풋고추 4월 정식면적은 강원지역에서의 작목 전환과 전남 영암, 보성 등 호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축소로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5월에도 강원지역에서의 품종 전환과 노지재배면적의 감소로 정식의향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7.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4분기 동향

-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월 2만 2,700원, 2월 1만 8,200원, 3월 1만 4,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3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8%, 13% 높았음. 1~3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24% 많았음.
- 정식 후 작황이 부진하여 첫 출하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작황 회복으로 1~3월 반입량은 많았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3,500원으로 작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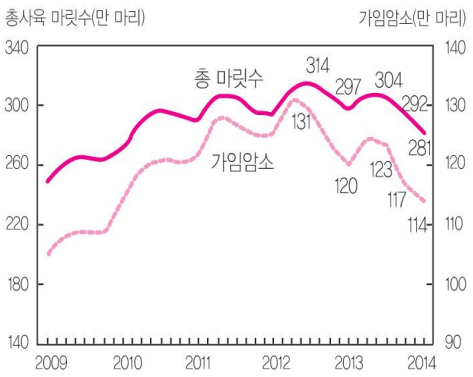
다 6% 높았음.

-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병해충 증가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할 것으로 보여 5월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9)]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여 3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작년 12월(292만 마리)보다 3.7% 감소한 281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97만 마리보다 5.2% 감소).
- 설 이후 한우고기 비수기로 1/4분기 1등급 도매가격은 작년 4/4분기 14,189원/지육kg보다 1.7% 하락한 13,944원임(전년 동기 12,634원보다 10.4% 상승).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비수기인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보다 0.6% 하락한 13,867원이었음. 그러나 암소 감축사업이 진행되었던 전년 동월 11,872원보다는 16.8% 상승하였음.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지인배 부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김진년 연구원(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3월 281만 마리보다 3% 증가한 288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306만 마리보다 6% 감소).
- 최근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계절적 비수기로 5~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보다 하락한 13,000~14,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1,773원보다 10~19% 상승).

●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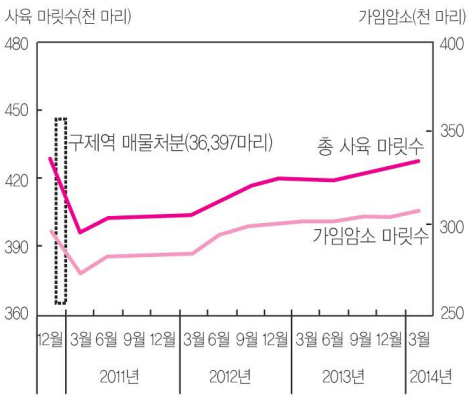
- 소비촉진 행사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 부담
- 수급상황에 따른 한우고기 할인행사 탄력적 적용
- 한우 도매단계와 소비자가격 모니터링 강화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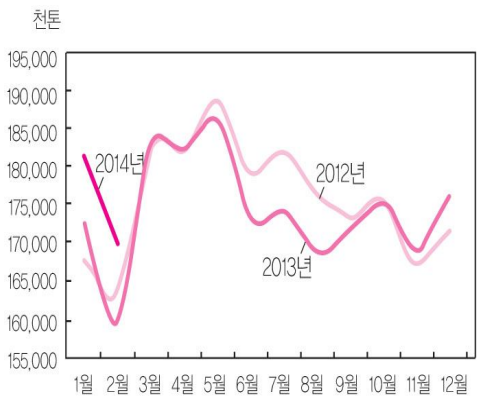
	3월(A)	6월(B)	B/A
사육 마리수	281만 마리	288만 마리	2.5%
1등급 가격 (지육kg)	1~3월 13,944원	5~6월 13,000~14,000원	-6.8~0.4%

6.2. 젖소

【 사육 동향 】



【 원유 생산 동향 】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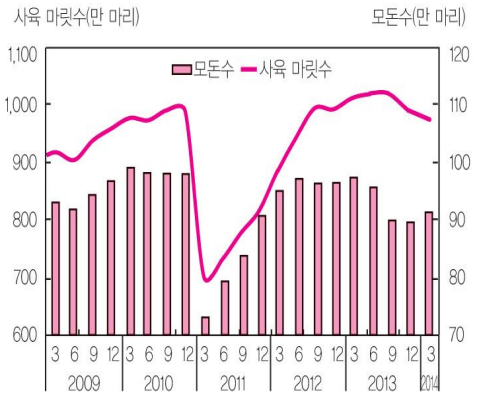
- 3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42만 8천마리, 가임암소는 1.9% 증가한 30만 7천 마리임.
- 2014년 1~2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5만 2천톤이었음. 한편 1/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33만 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 원유 생산량은 2014년 2분기 보다 1.3~2.2% 증가한 54만 9천~55만 4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3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12월보다 2.2% 감소한 970만 마리, 모돈수는 12월보다 1만 5천 마리 증가한 91만 마리였음(통계청).
- 도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하였고, AI에 따른 단체급식 대체수요 증가로 1/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 2,905원보다 35.9% 상승한 탕박 1kg 기준 3,948원이었음. 그러나 평년 동기 4,098원보다는 3.7% 낮은 수준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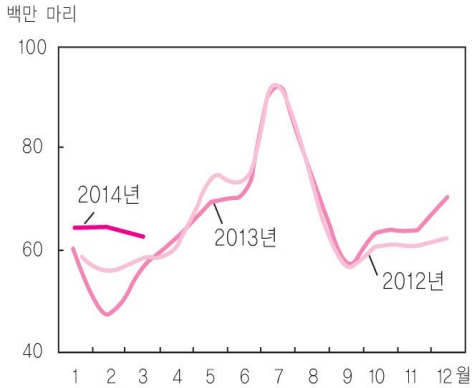
- 모돈 감축과 PED에 의한 자돈 폐사로 6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3월보다 소폭 감소한 950~960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인 2/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3,787원)와 평년(4,328원)보다 높은 탕박 기준 kg당 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PED 확산 방지 위한 차단 방역 강화
- 도매가격 변동폭 축소 위한 비육돈의 도매시장 출하 증가 유인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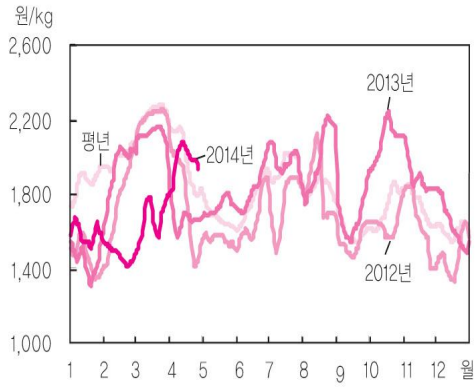
6.4. 육계

【 도계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1/4분기 동향

- 20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다수의 육용 종계와 육계가 매몰처분됨. 그러나 작년부터 대두되었던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8% 증가한 1억 9,100만 마리임.
- AI 발생으로 닭고기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열업체의 냉동비

축물량 전년수준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1분기는 도계 마릿수는 증가와 닭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2014년 1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4.2% 하락한 1,578원/kg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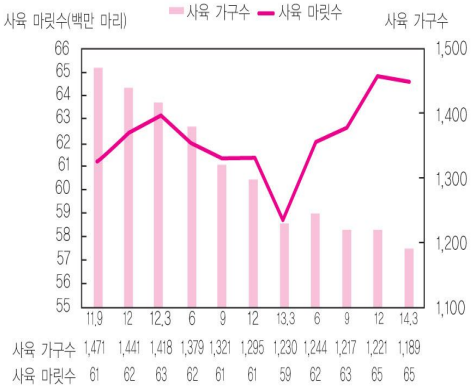
- 2014년 2분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4년 10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2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 닭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환경 변화로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회복세를 보이던 닭고기 수요가 전국적인 소비 침체로 감소함. 수요 감소 현상이 지속되어, 5월 닭고기 수요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월드컵 개최로 인한 닭고기 수요증가는 경기시간의 시차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초복이 있는 7월 수요는 비가 왔던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분기 닭고기 공급 증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평균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4월: 1,974원/kg, 5월: 1,500~1,700원/kg, 6월: 1,600~1,800원/kg)

● 대책 방향

-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과잉될 것으로 우려됨. 지속적인 종계 노계 도태가 필요한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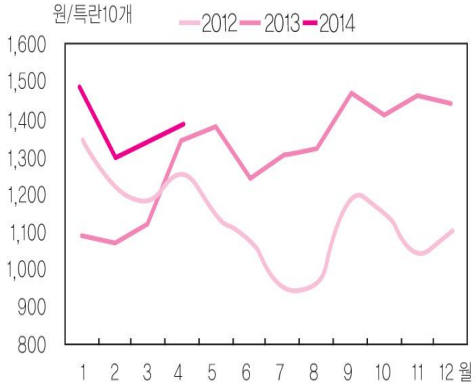
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협중앙회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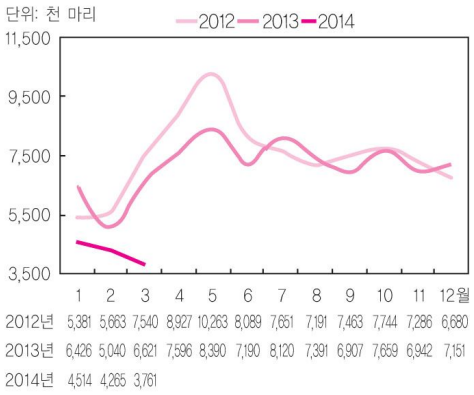
- 5차 HPAI 발생으로 산란계 510만 마리 살처분·매몰 처분됨.
- 1/4분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36.4% 증가한 915만 마리였으며, 1분기 산란 노계도태는 전년보다 13.5% 감소한 721만 마리였음.
- 산란계 매몰 처분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1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6% 상승 1,372원(특란 10개)이었음.

● 2/4분기 전망

- 산란계 매몰 처분으로 산란용 닭 마릿수가 감소하여 계란 공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4월 계란 산지가격은 1,383원(특란 10개)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상승함.
- 계란 공급량은 감소하나 2분기는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로 2분기 계란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수준인 1,200~1,4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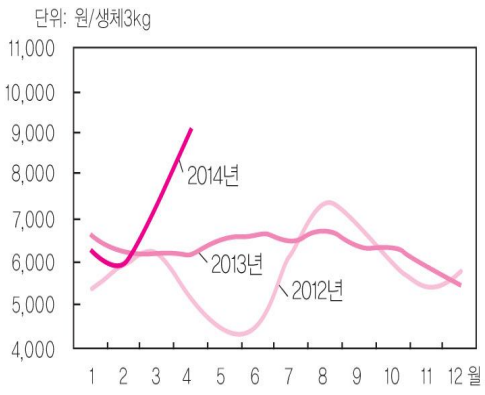
6.6. 오리

【 도압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생체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1/4분기 동향

- 5차 HPAI 발생으로 오리 295만 마리가 살처분 되어 3월 오리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41.3% 감소한 657만 마리였음(통계청).
- 종오리 51만 마리 살처분으로 1분기 도압 마릿수 전년 대비 30.7% 감소한 1,254만 마리였음.
- 오리 도압 마릿수 감소로 오리 생체가격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한 6,538원이었음.

● 2/4분기 전망

- 2, 3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8% 감소한 5만 9천 톤이었음.
  → 4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분기는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 고기 공급 감소 예상되어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9,000~9,500원/3kg으로 전망됨.

특 별 주 제

❶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❷ 기업의 농업참여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특별 주제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박동규**, 승준호***

1. 서론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9월까지 WTO에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가운데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일본과 대만의 TRQ 초과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2.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 일본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인정받은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함.

---

* 본고는 2013년 7월 발간된 「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jhseung@krei.re.kr)

● UR 협상에 따라 특별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MMA 물량은 이행 첫 해에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8%씩 증가하여 마지막 6년차에 8%였음.
- 이행 첫 해인 1995년 현미 기준 42만 6,000톤이 수입되고, 마지막 해인 2000년에는 85만 2,000톤이 수입되는 조건이었음.

【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일본의 쌀 MMA 물량 】

단위: 만 톤(현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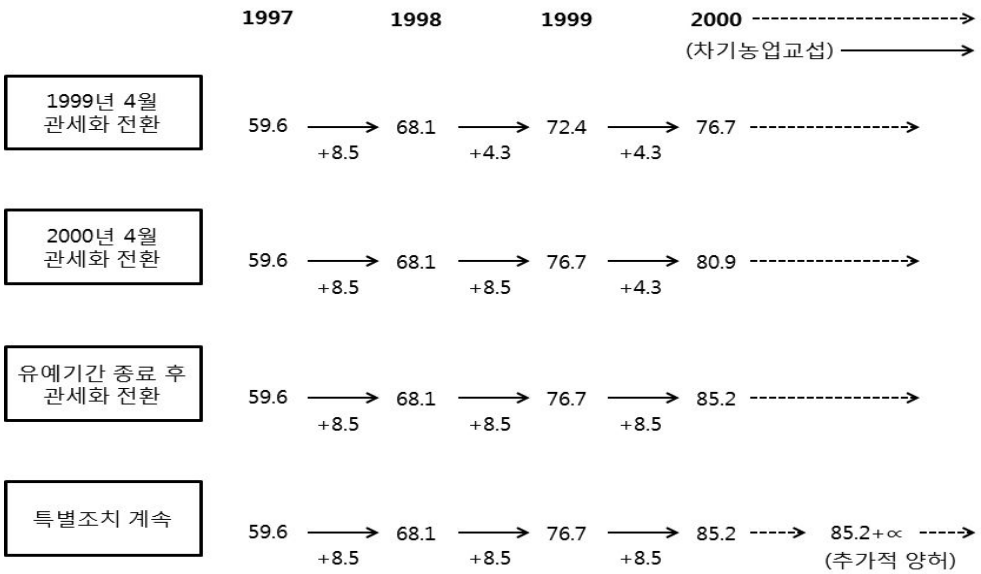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42.6 (4.0%)	51.1 (4.8%)	59.6 (5.6%)	68.1 (6.4%)	76.7 (7.2%)	85.2 (8.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 증가 폭이 줄어들도록 협상 내용에 포함하였음.
-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MMA 물량은 연간 8만 5천 톤이 늘어나지만, 그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은 연간 4만 3천 톤 만이 늘어남.

【 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전환 시기에 따른 MMA 물량 】

단위: 만 톤(현미 기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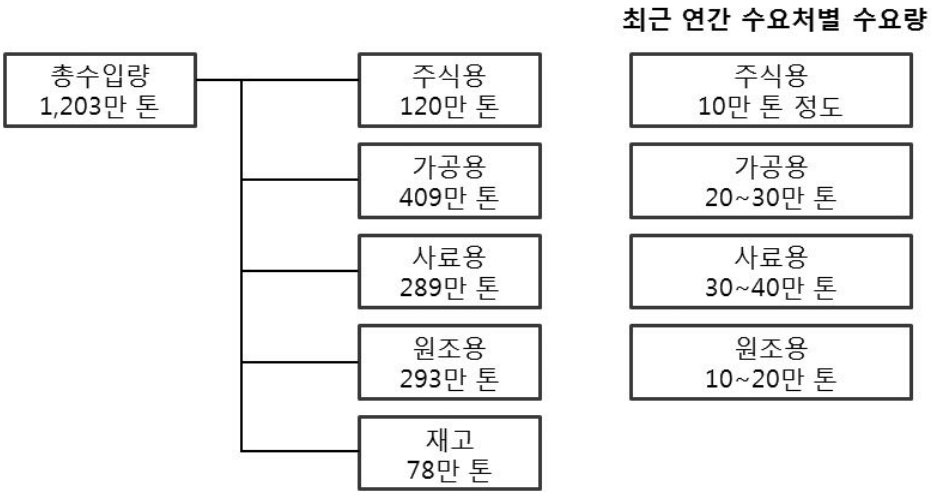
● MMA쌀은 일반수입의 경우 정부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된 수입업체에 수입을 위탁하고, SBS(Simultaneous-Buy-Sell) 물량은 국내 수요자와 수출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반수입 물량은 주로 가공용, 사료용 등 비주식용으로 사용되며, SBS물량은 주식용으로 사용됨.

● 1995년 4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수입된 쌀은 총 1,203만 톤으로 주식용,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하며, 사료용과 가공용 수요량이 가장 많았음.

- 국내산 쌀로는 대응하기 힘든 저가의 가공용(된장, 소주, 떡 등)으로 연간 20~30만 톤의 고정수요가 있음.
- 식량원조규약에 의한 일본의 원조용 약속물량은 밀가루 30만 톤에 상당(쌀 환산 시 약 19만 톤)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7월 이후 수입년도가 오래된 MMA쌀부터 순차 판매함.

【 일본의 MMA쌀 판매실적(2012년 10월 말 기준)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2. 1999년 관세화 전환

●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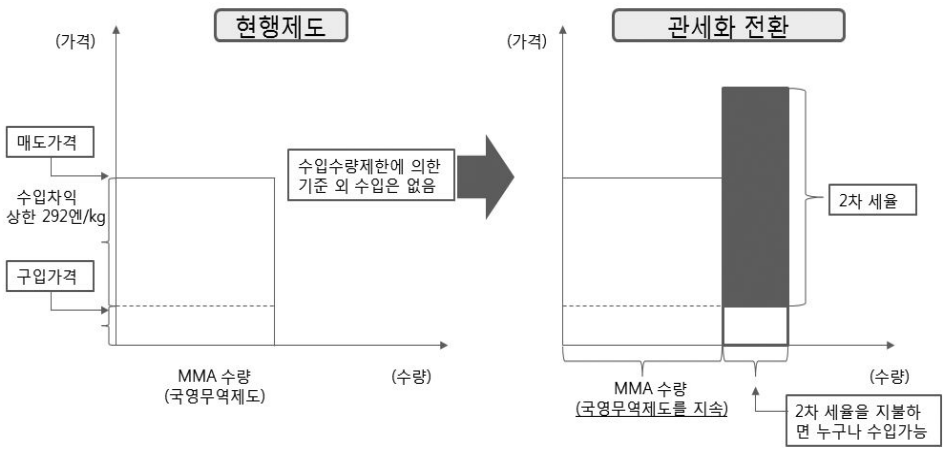
- 1996년 8월 일본의 쌀 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1997년 10월 말에는 자주유통미 85만 톤, 정부미 306만 톤 등 합계 391만 톤으로 증가함.
- 1997양곡년도 계획유통미 연간 판매량이 자주유통미와 정부미를 합쳐서 414만 톤인 데에 비하면 재고량은 거의 1년분 판매량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음.

● 관세화로 전환하면 2차 세율을 부과할 수 있고, 관세를 부과한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아서 수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함.

● 또한, 수입쌀 가격은 예상 가능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가격이 높은 니카다 고시히카리보다 비싸지므로 TRQ를 초과한 쌀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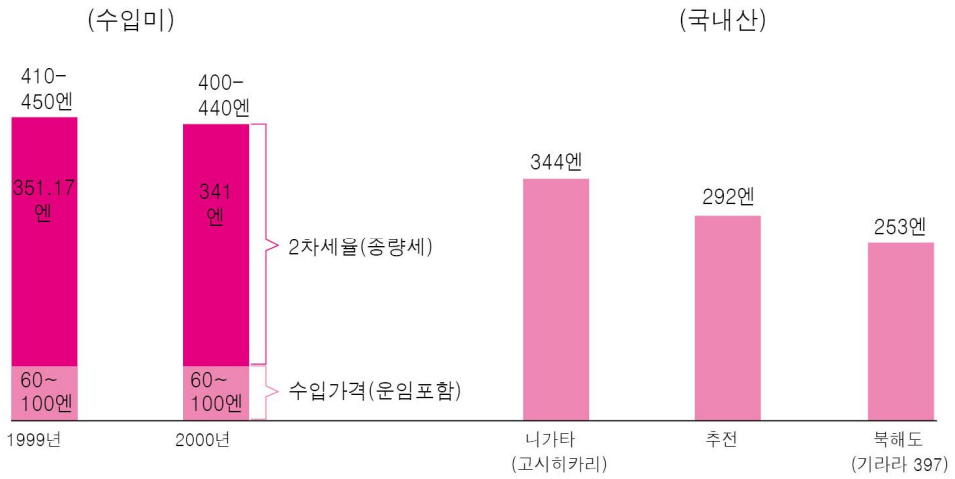
- 1997년산 수입 가격은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함.

【 일본의 쌀 관세화 전환 구조 】



주: 수입 차익은 MMA 수입쌀의 정부 구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일본의 관세화 전환 시 쌀 가격 비교 】



주: 1) 수입가격은 1997년 MA쌀 평균 구입가격 사용(미국 98엔, 호주 89엔, 중국 88엔, 태국 62엔)
2) 국내산 가격은 자주유통미 지표가격(1997년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1998년 9월부터 정부, 여당과 농업관련 조직에서 관세화유예 관련 협정 등을 분석하기 시작함.
- 전국 농협중앙회는 각 도도부현 중앙회에 쌀의 관세화유예 특례조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함(1998년 11월).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 토의를 시작함.

● 1998년 12월 18일에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농림수산성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 통상산업대신으로 구성된 「WTO 농업협정 관계 각료회의」에서 정부차원의 관세화 전환을 결정함.
- 12월 21일, 정부의 결정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함.

● 이의신청 기한인 1999년 3월 21일까지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음.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허가제에서 수입신고제 등으로 국내 관계법을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관세화 전환을 실시함(1999년 4월 1일).

2.3. 관세상당치 산정

● 일본은 관세화 전환 시, 적용 가능한 기준년도 관세상당치를 종량세 402엔/kg으로 산출하였음.

- 국제가격은 일본이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대장성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 국내가격은 식량청이 조사하는 「미맥등의 가격조사」 자료에서 인용함.
- 일본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 상당치 설정에 있어서 수입쌀 가격 하락과 저가 수입쌀에 대한 안정적인 국경조치로서 종량세 적용을 결정함.

【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출 근거 】

기준년도	국제가격(A) (수입CIF가격)	국내가격(B) (상품 정미도매가격)	B-A
1986년	29	438	409
1987년	31	435	404
1988년	37	429	392
3년 평균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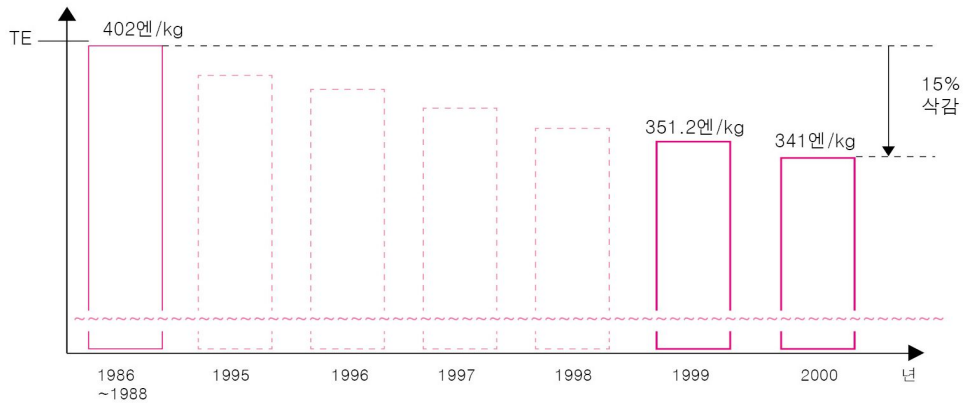
● 농업협정에 따라 기준년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함.

-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을 적용함.
- 국제가격은 실제 수입가격(보험료와 운임 포함) 평균, 국내가격은 대표적인 도매가격을 사용하되, 관세상당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국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함.

● 일본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 상당치 설정에 있어서 수입쌀 가격 하락과 저가 수입쌀에 대한 안정적인 국경조치로서 종량세 적용을 결정함.

- 당시 외국산 쌀의 수요 실태 등을 고려한 결과, 국산 쌀이 수입쌀과의 경합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은 주식용·식당용 및 가공 수요 등에 필요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이었음.
- 한편, 국제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량세가 적당하였음.

【 관세상당치의 결정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2.4.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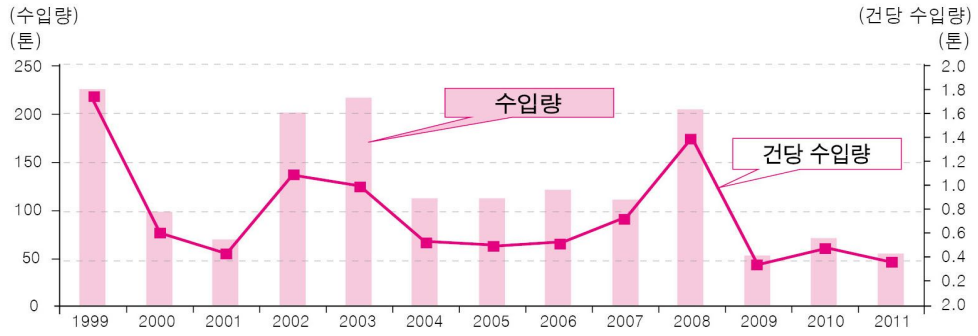
- 일본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관세화 전환 이후 연간 100톤 내외가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연간 50톤 내외로 줄어들었음.
  - 건당 수입량도 1톤 정도에서 최근에는 0.4톤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건도 2006년에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1년에는 146건으로 감소함.

- TRQ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며, 수입국은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TRQ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의 관련 공무원이나 학계 전문가의 일반적인 평가임.

- TRQ초과 수입량이 많지 않고 향후 전망도 비관적(수입량이 많지 않을 것)인 것은, 관세가 높아 수입쌀이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는 kg당 1999년에 351.2엔에서 2000년 이후에는 341엔으로 고정되어 수입쌀 가격이 고가의 국내산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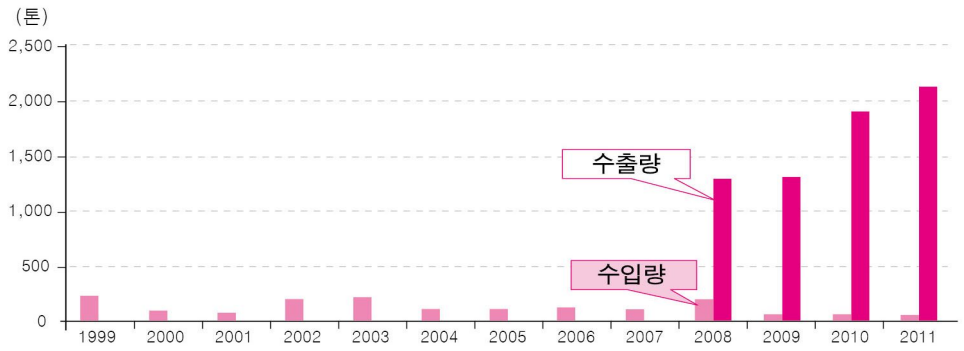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 수입량이 줄어드는 반면 수출량은 2008년 이후 소폭 늘어나고 있음. 2011년 수입량은 2,200톤 정도이며 수요자는 주로 해외 거주하는 일본인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아베정부에서는 쌀도 주요 수출 가능 품목으로 선정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음.

- 생산조정제를 폐지하여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도록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과 수출량 변화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3.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3.1. WTO 가입과 관세화 유예

●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특별조치로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선진국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에 MMA 방식으로 기준년도(1990~1992년) 소비량의 8%인 14만 4,720톤(현미 기준)을 수입하기로 함.
- MMA 물량 중 65%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수입하는 방식에 합의하였음.
- 관세율은 쌀에 대해 0%, 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10~25%를 적용하기로 함.

● WTO 규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종료기간 내(2002년 말)에 관세화 전환 또는 관세화유예 연장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 MMA쌀은 정부쿼터, 민간부문 쿼터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SBS 물량과 민간 쿼터량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

【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일본의 쌀 MMA 물량 】

단위: 톤(현미 기준)

정부 쿼터(65%)		민간 쿼터(35%)	합계
정부(MMA)	SBS(CSQ)		
49,768	44,300	50,652	144,720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 2007년 이후 대만의 연도별 쌀 총 수입실적은 2010년을 제외하면, TRQ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총 수입량은 11만 1,636톤으로 2007년보다 약 2만 5천 톤 감소한 수준임.
- 대만 정부는 연도별 수입 실적에 큰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TRQ 물량을 계약하므로 수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5년간 대만의 국가별 쌀 수입은 미국, 태국, 베트남 3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해왔음(2011년은 호주 수입량 증가로 77%).

【 대만의 국가별 쌀 수입량 】

단위: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37,105	102,652	86,583	154,591	111,636
호주	368	297	234	102	24,737
캐나다	–	1	–	–	–
중국	–	–	25	1	–
캄보디아	113	–	–	203	–
이집트	5,486	8,946	–	2,626	300
인도	127	45	59	37	45
인도네시아	–	149	222	–	–
이탈리아	9	12	14	25	31
일본	464	494	351	320	180
한국	–	–	–	1	–
미얀마	–	–	2,808	2,396	–
파키스탄	20	–	1	23	24
태국	44,391	39,357	39,828	24,932	33,273
미국	74,685	30,608	16,658	99,976	24,454
베트남	11,442	22,743	26,383	23,949	28,592

자료: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http://www.customs.gov.tw/statisticswe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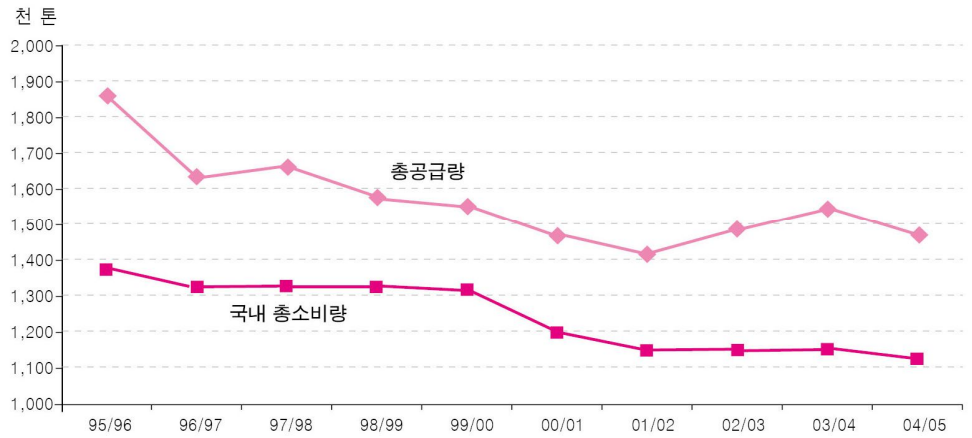
3.2. 관세화 전환 배경

● 대만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MMA 물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했음.
- 국내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MMA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쌀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함.

● WTO 가입 이전 대만의 쌀 공급량과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초과공급 상태에 있었음. 2002년 WTO 가입에 따른 MMA물량이 도입되면서 쌀 초과공급량은 증가세를 보였음.

- 1995/96양곡연도 쌀 총공급량은 국내 총소비량보다 35.8% 많은 수준이었으며, 2001/02양곡연도에도 총공급량이 소비량보다 23.3% 많았음.
- MMA물량 도입으로 초과 공급 물량이 늘어나 2003/04양곡연도에는 총공급량이 국내 총소비량보다 34.3% 많은 수준까지 증가함.

【 대만의 쌀 공급량과 소비량 추이 】



주: 총공급량은 이월량, 생산량, 수입량의 합계이며, 총소비량은 식용, 가공 등을 모두 포함한 국내 소비량임.
자료: USDA, PSD Online.

● 또한 적정 수준의 TE를 부과하게 될 경우 TRQ를 초과한 수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3.3. 관세화 전환과 관세상당치

● 대만은 2002년 9월 30일 WTO 사무국에 2003년 1월 1일부터 당시의 특별대우에서 관세화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통보함.

●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첨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실제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졌음.
- 적용된 기준년도는 1986~1988년 대신에 1990~1992년으로 '이는 대만의 가

입을 위한 실무작업반 보고서'의 175항에서 양허한 바를 따른 것임.

● 국내 가격으로는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브랜드 백미'의 도매가격을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사용함.

【 대만의 브랜드 백미 가격과 도매가격 지수 】

연도	월 최고가격 평균(1)	월 최저가격 평균(2)	((1)+(2))/2	도매가격지수 (c)	(a)×(c)/(b)
1990년	–	–	–	93.09	62
1991년	–	–	–	93.24	62
1992년	–	–	–	89.82	60
평 균					61
1999년	96	25	60	95.58	
2000년	100	25	63	97.32	
2001년	110	27	68	96.02	
평 균	102	26	(a)64	(b)96.30	

자료: 최고가격은 대만식품통계, 농업통계월보, 최저가격은 대만가격 통계월보.

● 한편, 국제가격은 기준년도 '수입국의 실제 CIF가격 평균'인 kg당 8NT$를 적용하였음.

- 해당년도에 태국에서 수입한 가격을 적용함.

【 대만의 실제 쌀 수입 물량 및 가격 】

연 도	물량(톤)	금액(천 NT$)	평균 CIF가격(NT$/kg)
1990년	1,560	11,857	8
1991년	1,591	13,327	8
1992년	1,285	11,561	9

자료: 수입월보, 대만.

●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6항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쿼터와 관세율은 기준년도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산출함.

- 관세 인하 폭은 15%로 적용하였음.

●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kg당 45NT$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함.
- 기준년도 관세상당치인 53NT$/kg에서 15%를 삭감하여 산출함.
- 종량세 kg당 45NT$는 종가세로 환산하면 562.5%에 해당됨.

● 한편 관세화를 통한 수입량이 당해연도 특별긴급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에 따른 발동수준(TL: Trigger Level) 물량을 초과할 경우 세율을 최고의 3분의 1까지 인상할 수 있음.

【 대만의 쌀 관세상당치 결정 】

단위: NT$/kg

	국내가격 (a)	국외가격 (b)	가격차 (a)-(b)
1990년	62	8	54
1991년	62	8	54
1992년	60	9	51
평 균	61	8	53

3.4.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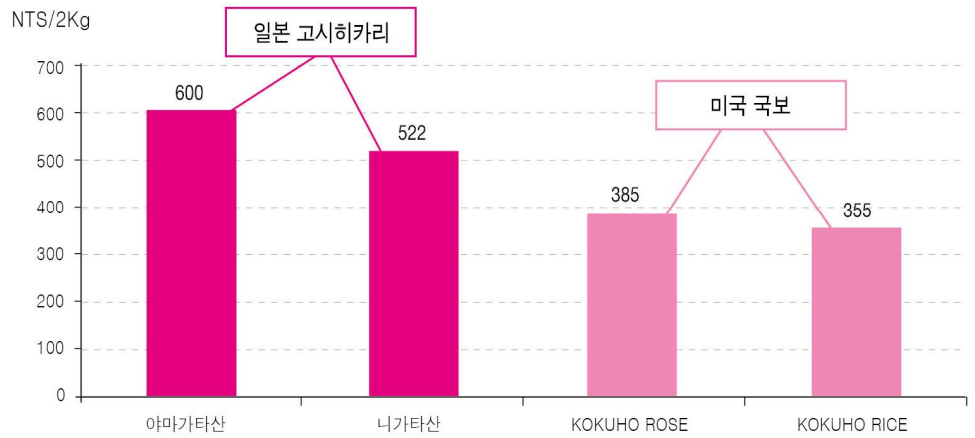
● 대만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로 추정됨(대만 농업위원회).
- SBS 물량과 TRQ 물량 중 민간쿼터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TRQ 초과 수입량이 얼마인지 구분이 어려운 실정임.
- 무역통계자료는 TRQ 이내 또는 초과 수입량 구분 없이 국별 수입량만 집계하고 있음.

● TRQ 물량 중에서 SBS 물량 및 민간인에게 쿼터를 입찰하여 수입하는 물량과 TRQ 초과 수입량 간에 혼동이 있어서 TRQ초과 물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 즉, TRQ 초과 수입량에 대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 타이페이 시내 고급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고시히카리 쌀 가격은 2kg 당 522~600NT$ 수준이었으며, 동일한 규격대의 대만산 쌀 가격은 249NT$ 수준으로 일본산이 국내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2013년 6월 26일 기준).
- 한편, 동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국보의 쌀 가격은 2kg 당 355~385NT$로 일본산 고시히카리(522~600NT$)보다 낮았으나, 대만산보다는 130NT$ 이상 높은 수준임.
- 2kg 최고가는 일본산(600NT$), 미국산(385NT$D), 대만산(249NT$) 순으로 판매되고 있음.

【 타이페이 시내 고급슈퍼마켓의 일본쌀과 미국쌀 가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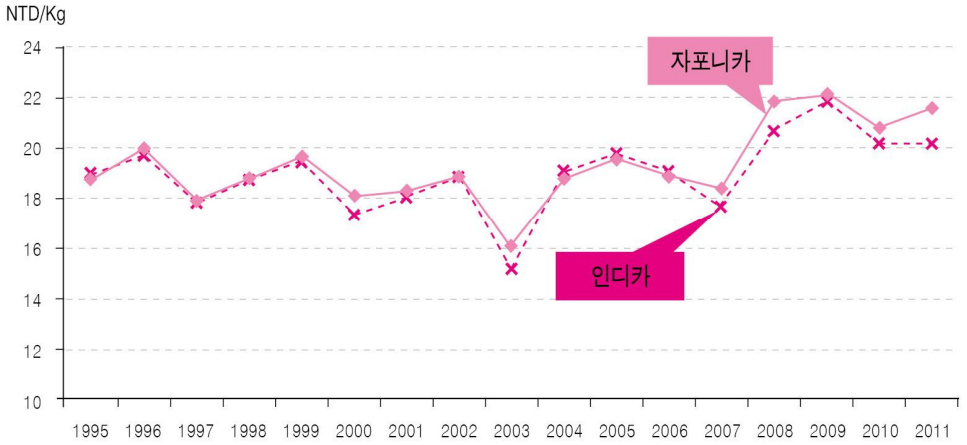
주: 2013년 6월 말 기준.

3.5. 관세화 전환 직후 일시적 혼란, 국내 생산기반 유지

● 대만의 벼 가격(자포니카 기준)은 2002년 kg당 18.8NT$에서 관세화로 전환한 2003년에는 16.1NT$로 15%정도 하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함.
-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3년산 작황도 좋았지만 유통업자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을 시장에 방출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함.

● 2004년의 벼 가격은 200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2008년 가격은 2007년산 작황이 부진하여 크게 상승하였음.

【 대만의 벼 가격 추이(1995~201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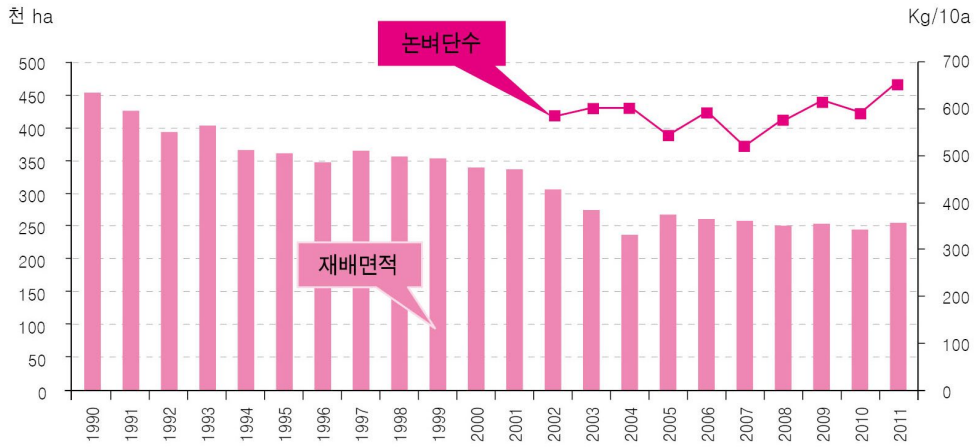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2011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book.

●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며 2003년 관세화 이후 30만 ha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관세화 이전 감소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벼 재배면적이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을 유지함.
- 2002년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30만 7천 ha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2% 감소하였으나, 2011년 벼 재배면적은 25만 4천 ha로 2002년 이후 연평균 2.1% 줄어들었음.
- 2011년 논벼 단수는 10a 당 655kg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1.2% 증가함.

【 대만의 벼 재배면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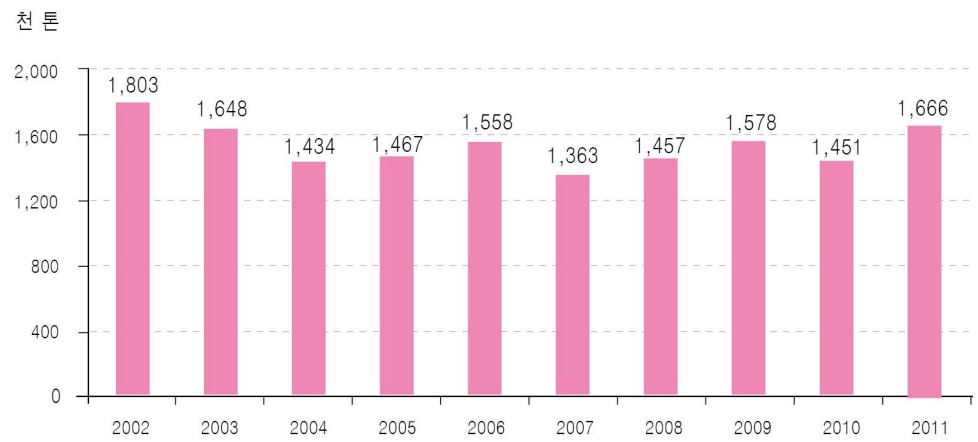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2011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book.

● 2011년 대만의 쌀 생산량은 166만 6천 톤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0.9% 감소하였음.

- 2005년 이후 큰 폭의 면적 감소가 없어 단수가 급격히 줄어든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면 쌀 생산량이 1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만의 쌀 생산량 추이 】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2011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book.

4. 요약 및 시사점

4.1. 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물량은 미미한 수준

●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세상당치가 국경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초과 쌀 수입량은 연간 100톤 내외에서 20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로 감소하였음.
- 향후 TRQ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반적인 평가임.
- TRQ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용도가 제한적임.

● 대만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 TRQ를 초과한 물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됨.
- TRQ를 초과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물량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겨짐.
- 한편, 벼 재배면적도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으로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4.2.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 노력 필요

● 일본은 기준년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하였음.
-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
- 1997년산 수입 가격은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

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

● 대만은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kg당 45NT$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함.
- 기준년도 관세상당치인 53NT$/kg에서 15%를 삭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종량세 kg당 45NT$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2.5%에 해당하는 수준임.
- 또한 관세화를 통한 수입량이 당해년도 특별긴급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에 따른 발동수준(TL: Trigger Level) 물량을 초과할 경우 세율을 최고의 3분의 1까지 인상할 수 있음.

●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4.3.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 대비 필요

●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화 전환 시에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만의 산지 쌀값은 2003년 5월까지 kg당 16NT$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의 본격화와 국내산 쌀의 수확기가 겹치면서 6월부터는 16NT$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2003년 10월 중순에는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현미기준 kg당 15.2NT$) 밑으로 하락하자 대만 정부는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져서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음.

●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참고 문헌

김명환외. 2007. "쌀 관세화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GS&J Institute.

김배성·김명환. 2004. "쌀시장 개방 및 정책 대안별 쌀 농업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5권 4호.

박동규외. 2007.「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외. 2006.「쌀 공공비축제 세부운용 및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외. 2006.「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외. 2004.「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외. 2009. "한시가 급한 쌀 조기관세화." GS&J Institute.

서진교외. 2008. "DDA농업협상, 우리 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GS&J Institute.

서진교외. 2004.「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찬익. 2004.「대만의 쌀 시장 동향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이 욱. 2003,「대만의 농산물 수입 피해구제 제도」. 농협경제연구소.

이 유안-호. 2004. "대만의 쌀수입 관세화 과정 및 결과." 한국농업경제학회 2004 하계학술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한국의 쌀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

한두봉외. 1999.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고려대학교.

農林水産省. 1998.「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Yearly Report of Taiwan's Agriculture.

<http://eng.coa.gov.tw/list.php?catid=8821>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2012, 2011 Agricultural Statistics Book.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Trade Statistics. <http://www.customs.gov.tw/statisticsweben/>

USDA. FAS. PSD Online. Custom Query. <http://www.fas.usda.gov/psdonline/psdquery.aspx>

【특별 주제 2】

기업의 농업참여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김태곤**, 최병옥***

1. 서론

● 시장개방의 확대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부존하는 인력, 농지, 자본 등 3요소 간의 균형유지가 필요함. 최근 고령화에 의한 인력고갈이 3요소의 불균형을 초래, 농업이 축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이것이 자급률과 다원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쇠퇴의 문제로 확산됨.

● 반면에 농업은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귀농자 증가, 일반기업의 농업참여, 도시농업의 활성화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농업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경영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그 중에서 구조정책 영역의 '다양한 경영주체 육성'과 '규모화·조직화·법인화' 등의 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다양한 경영주체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농업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 실

* 본고는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2013. 9)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taeg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bochoi@krei.re.kr)

제로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여 적절한 경영성과를 실현하는 사례가 있음. 반면에 기업과 지역 농가와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서는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배경과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기업의 농업참여 배경

2.1 농업측의 요망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음. 우선 농업측의 요망에 의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여 영세 농가와 협력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면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임.

●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경영만으로는 농지이용이나 지역농업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지자체 또는 지역농협이 기업과 연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의 농업진입을 장려하는 사례가 있음.

2.2. 기업측의 기대

●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도 늘어남. 기업이 가진 자본이나 제조기술, 판매망 등의 유리성을 살려서 농업에 참여하는 사례임.

● 식품산업부문에서 특히 농업진입에 적극적임. 식품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채소나 과일 등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에 참여하거

나 지역 농가와 계약거래하는 사례가 있음. 일본에서는 지방 토건업자가 공공사업 축소에 대응하여 대형기계와 고용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최근 기업이 환경이나 복지, 지역사회 공헌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지역사회도 기업이 가지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임.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에 진입하여 영세농가와 연대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례가 있음.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기여함. 그래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농업에 참여하는 유인이 된다는 판단임.

- 한편 기업의 농업 참여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님. 기업의 농업참여가 기존 농가와의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협소해지는 국내시장을 두고 기업과 영세한 농가가 경합하는 관계가 생기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함. 이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나가야 함.

3. 기업의 농업참여 방법

3.1 농업법인 설립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음. 우선 기업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임. 농업법인은 농지소유가 가능하고, 또한 정부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경영주체임.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손쉬운 방법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착수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내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됨.[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 이내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2)]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을 행함.

3.2. 기존 농업법인에 출자

● 둘째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농업법인에 출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임. 즉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방법임.

● 이 방식은 농지 확보가 곤란한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축산이나 시설원예 등 자본집약적인 시설형 농업에 용이함. 식품가공업이나 외식업 등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사례가 있음.

3.3. 직접적인 농업경영

● 셋째 기업의 직접적인 농업경영 방식임. 이것은 기업이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농업법인에 일부 출자를 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임.

1) 각종 정책자금을 비롯하여,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경감 등의 세제상의 혜택도 강구됨.

2) 이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첫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둘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함. (2012. 5. 22. 개정)

● 이 경우는 농업경영체가 아닌 '농업 외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동시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됨. 그래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형 농업'이나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수탁사업' 부문에 일부 사례가 있음.

3.4. 농가·협동조합 등과의 연대

● 넷째 기업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협 등과 연대하는 방식임. 이것은 기업이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주도하여 지역단위로 이종산업간 연대하여 일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임.

●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 6차산업화의 유형으로 기대되는 '프랜차이즈 방식'이나 '농공상 연대' 등임. 프랜차이즈 방식은 외식업이나 식품제조업 등이 지역의 생산농가와 연대하여 기술지도와 자재공급을 전제로 생산물 판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단위의 기술보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공상 연대는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소매업 등의 기업이 지역의 농가와 연대하여 원료 농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식품제조업체가 가공하여 지역브랜드로 확립, 외식업이나 소매업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의 농업참여 형태 】

농업법인 유무	농업참여 형태	비고
일반법인	Ⅰ-1 농작업수탁 Ⅰ-2 시설형 농업	농지를 이용하지 않음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제외)
일반법인	Ⅱ 토지이용형 농업	농지임차경영 가능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제외)
농업법인	Ⅲ-1 농업법인 설립 Ⅲ-2 농업법인 출자	농지소유 및 임차경영 가능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 세제감면)
일반법인	Ⅳ 농공상 연대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연대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제외)

4. 기업의 농업진입과 규제완화

4.1. 개별경영의 신규진입 확대(1994년)

-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 의해 농업내부에서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외부의 도시민·도시자본의 농업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의 취득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이용규제를 강화였음.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계획서를 첨부하면 누구라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단지 취득한 농지는 취득 목적대로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4.2. 주식회사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2002년)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의 법인화를 촉진하고, 이들 농업법인에게도 농지소유가 허용됨. 단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은 농지소유를 금지함.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2002년 조건부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농지소유의 길을 확대함.

4.3. 농지임대차의 부분적인 허용(2005년)

- 농지처분명령제도는 1994년 농지법에서 농지의 취득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취득목적대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 또는 휴경하는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며,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농지처분명령제도는 취득 규제완화와 연동하여 소위 출구규제로서 불가피한 제도였으나 임대차 등 농지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그래서 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한 임대차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처분명령 대상농지에 대해서도 성실경작을 하거나 매도위탁을 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길을 열어둠.

4.4.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2005년, 2012년)

●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규모화와 법인화를 동시에 추진해왔음.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기업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함.

● 그러나 기업적 경영의 필요성 등으로 출자제한을 완화함.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초기에는 50%이었으나, 2005년 75%로, 그리고 2012년 90%로 완화함.[1)]

● 따라서 기업의 농업진입은 농지임대차를 통한 직접적인 경영을 비롯하여,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기존의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5. 기업의 농업참여 현황

5.1. 기업의 직영형태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기업의 직영형태'와 '기업과 생산자 및 지

1) 일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인당 10% 이하, 합계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지 6차산업화나 농공상연대 등의 경우는 합계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자체의 연대형태'로 대별할 수 있음.

- 먼저 기업 직영형태의 참여사례는 다시 '생산영역의 직영'과 '생산과 유통영역의 직영'으로 분류함. 기업이 직영체제로 생산부분에 진입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에 이루어짐.

- 기업의 농업참여가 가장 오래된 곳은 아모레퍼시픽으로서 직영농장 형태로 1979년 제주도에 진출하여 현재 총 190ha 규모로 녹차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중임.

- SK 임업은 임산물 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산림휴양 시설 등으로 활용함.

-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을 2006년도에 설립하여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수를 공급함.

- KT&G는 인삼과 한약재 원료조달의 안정성과 건강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본농원을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생산과 유통직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그룹 사례와 함께, 현대차기업·현대백화점 사례가 대표적임. 현대서산농장은 2005년에 설립되어 한우비육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획득 및 축산물 부문 식품안정인증(HACCP)을 받음.

5.2. 기업·생산자·지자체 연대형태

- 기업의 농업참여가 생산자 및 지자체 연대인 경우에는 생산과 가공, 생산과 유통, 가공, 산학연 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방식이 나타남.

- 기업이 생산과 가공이 결합된 형태로 농업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가공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기업은 가공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매일유업과 전북 고창군 상하면 낙농가는 생산자의 원유를 100% 매입하여 프리미엄 치즈 및 유제품을 생산함.
- CJ와 신의도 천일염 생산자는 전남 신의도에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하여 생산자와 공동출자 형태로 운영함.

● 기업의 농업참여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유통분야를 함께 개척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짐.

- 농심과 홍천군은 수라쌀을 상품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을 전담하고 기업은 마케팅 및 판촉을 전담, 2009년부터는 '고향산천강원도쌀밥'이라는 즉석 밥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한화와 나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대기업과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연대한 형태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형태임.

● 기업의 농업참여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대상FNF와 순창군 전통 고추장 마을은 MOU를 체결하여, 고추장 마을에서 절임과 숙성을 거친 반제품을 공급하면 대상FNF의 종가집은 2차 양념과 발효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6. 기업의 농업참여 사례

6.1. 오창농협과 SK그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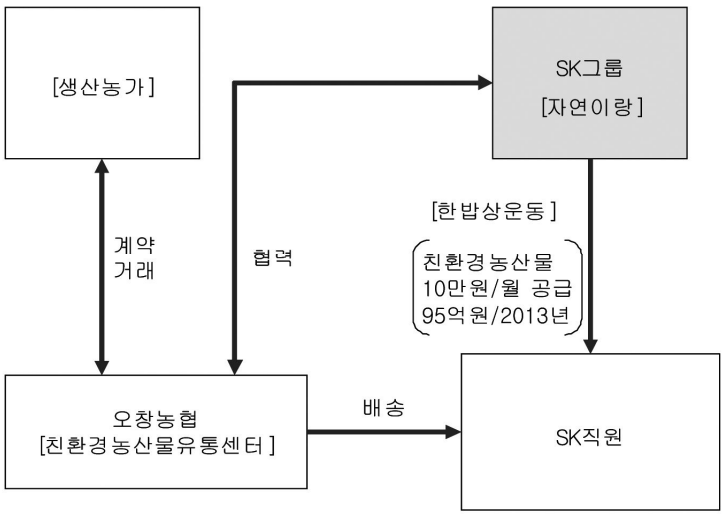
6.1.1. 추진과정

● 2003년 SK그룹은 그룹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다가 친환경 농업분야를 선택함. SK그룹은 '한밥상 운동'을 채택, 친환경농산물을 SK직원에게 공급하고자 함.

● SK그룹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오창농협에 의뢰하였고, 오창농협은 SK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이 시작됨. SK가 오창농협을 선택한 배경에는, ① 조합장의 강한 의지, ②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③ 교통의 편의성이 작용함.

● 오창농협은 200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팀을 구성, 노력해왔음. 오창농협은 ① 인증대행, ② 영농기술 대행, ③ 친환경 자재공, ④ 친환경농산물 수매 및 판매사업 등을 추진함.

【 SK·오창농협의 사업추진 방식 】



6.1.2. 사업추진 방식

● 오창농협은 2008년도에 총공사비 76억 2,700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신축함.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신축하면서 SK의 물류센터 운영시스템을 받아들여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함.

● 유통이력 추적시스템은 생산자의 출고부터 고객에 도착하는 단계의 작업과정,

위치, 상태 등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용이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SK그룹은 직원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양과 관계없이 1달 약 10만 원 수준의 보조를 실시함. 오창농협과 SK는 2005년부터 7억 원 규모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3년 95억 원 까지 급성장하였음.

● 오창농협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매취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요구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영함.

-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가장 비쌌던 2006년과 2007년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재배 가격을 결정(전체 취급물량의 약 40% 정도 차지)
-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채소류의 경우 계약재배 단가를 정하여 가격 등락폭의 50%를 반영(전체 취급물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
- 생협 등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재배 실시(전체 취급물량의 30%를 차지)

● 오창농협의 2012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은 총 14,975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매출액의 약 50%가 SK에서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물량임. 오창농협은 SK와 거래하는 물량 이외에도 학교급식, 대형매장, 기타 판로를 구축하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함.

6.2. CJ·대상의 천일염 참여사례

6.2.1. 여건

● 천일염은 1996년 소금수입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에서 폐전을 유도할 만큼 경쟁력을 상실함. 2008년에는 식약청 식품고시로 인하여 절임용 등 간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식염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 또한 천일염 생산 여건은 생산규모의 영세성, 생산자 고령화 등에 따른 시설투자 기피로 염전 바닥재 및 해주창고 등에 비닐장판,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6.2.2. 유치배경

●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고시되면서 생산부분의 위생성을 확보하고 유통 및 가공, 판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시작함.

● 국내의 대표적 식품기업인 ㈜CJ와 ㈜대상은 천일염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일염 제조 및 유통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

● 전라남도는 영세규모의 생산자가 농업 생산 및 유통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식품기업과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분야를 결합할 경우 6차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천일염 산지종합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6.2.3.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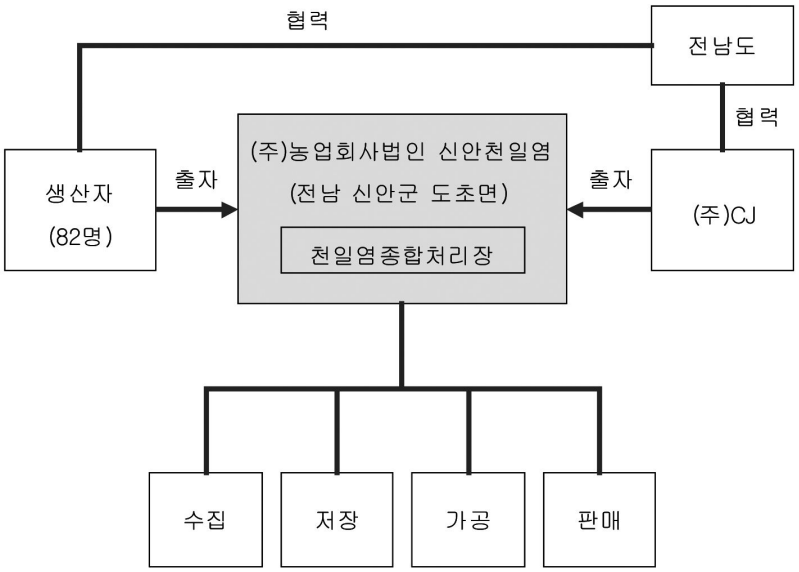
● 전라남도는 ㈜CJ와 ㈜대상을 유치하기 이전에 신안군과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립 및 운영방식을 확보함.

- ㈜ CJ 제일제당은 신안군 신의면에 천일염 생산자 83명과 '신의도천일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생산자를 주주로 참여시켰음.
- ㈜ 대상 청정원은 신안군 도초면에 천일염 생산자 82명과 '신안천일염주식회사'를 설립함.

6.2.4. 유치효과

● 기업의 산지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생산, 품질관리, 포장재 개선, 상품 다양화 등으로 천일염 가격 상승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상승함.

【 ㈜대상의 천일염 사업 운영방식 】



● 생산자가 염전시설을 개선하여 식품규격에 적합한 천일염을 생산할 경우 ㈜CJ와 ㈜대상은 일반 천일염보다 고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염전의 시설개선 사업을 촉진시킴.

● ㈜CJ와 ㈜대상의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대형유통업체 납품, 자사제품 사용,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식품기업인 농심, 풀무원, 동원F&B, 삼강 등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천일염 사용을 촉진하여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신안천일염은 자사직원과 지역주민을 합하여 1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신의도천일염은 20명을 고용, 지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

6.3. 나주시와 한화의 연대사례

6.3.1. 참여배경

- 전남 나주시 친환경농산물과 한화그룹의 유통레저 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간 연계사업은 행정과 기업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모티브로 출발한 일종의 기업의 '지자체 연대사업'임.

-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친환경학교급식 정책분야에 있어 성공모델을 구축한 기초자치단체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행정적 협력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였음.

- 나주시 친환경농산물은 쌀, 과일류, 채소류 등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산지유통조직(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범위가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판로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음.

- 나주시는 2003년 국내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임. 관내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연간 약 60억원에 불과하여, 기업의 영업망을 활용, 전남권 및 수도권 시장에 대한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고 있었음.

- 한화그룹의 식음서비스 및 농식품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식자재유통 분야의 지역 및 매출확대를 추진 중이었음.

- 또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호남권 거점센터 부재로 전국단위 식재유통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호남권 신규 물류센터 및 영업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 2009년부터 정책변화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나주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사업방향은 일

치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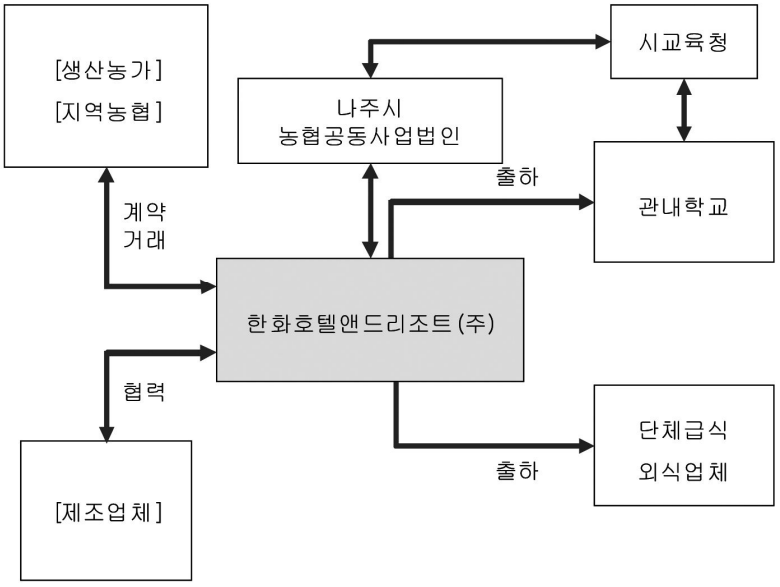
6.3.2. 사업현황

(1) 운영체계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대형화 및 유통물류의 선진화 추세에서 지자체·기업 간 연계사업이 시도됨. '나주시·한화' 모델은 농식품 생산과 유통 영역에 있어 양자의 비교우위 역량을 활용, 지자체와 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계약재배, 농가관리, 고품질 생산구조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한화는 지역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수발주 및 물류체계에 기업시스템을 접목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운영 선진화에 기여함.

【 나주시·한화 학교급식 및 식자재 사업의 운영체계 】



(2) 운영방식

- 나주시는 국내 친환경학교급식 분야에서 선진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됨.

- 나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학교급식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나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점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에 두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유하도록 지원함.

- 한화는 자체 전산, 배송차량 등을 활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전담하여 거점 APC에 매일 수집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콜드체인방식으로 익일 아침 학교별 배송 및 사후처리까지 수행함.

(3) 사업성과

- 나주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전산,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친환경 식재료 일일 배송체계를 구축하였음. 기존 나주 친환경농산물은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혹은 인근 광주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였으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서울 및 수도권, 전남권과 여타 지자체로 시장이 확대됨.

- 나주시는 기업물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발주 및 배송 업무를 효율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량을 핵심업무인 생산 및 안정성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확립함.

- 나주시는 과일 및 과채류 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점 APC를 학교급식 사업과 연계하여 식자재유통 사업의 물류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연중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가동률 및 매출액 향상에 기여함.

6.4. 동부팜한농 사례

6.4.1. 농업참여과정

- 동부팜한농은 2000년 이후 토마토 직영농장 뿐만 아니라 도매법인, 종자회사 등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해옴. 동부팜한농은 약 60년 간 농자재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지주사인 동부그룹에서 농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함.

- 동부팜한농은 2000년 이후부터 농산물 종묘, 생산, 유통, 가공, 도매 등의 분야에서 관련된 기업을 순차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수직적 계열화를 신속하게 구축함.

- 동부팜한농이 농업생산에 첫 번째로 참여한 사례는 새만금이었음. 새만금은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최초의 사업이었고 유리온실 50ha를 건설하는 정부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됨. 최초 동부팜한농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은 수출 50%, 내수 50%이었으나 이때부터 토마토 생산농가 및 농민단체와 갈등이 시작됨.

- 동부팜한농은 2011년 충남 논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팜슨을 인수하면서 농업 생산분야에 참여함. 농업회사법인 팜슨은 최첨단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를 생산하면서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업체였으나 정부지원사업 횡령 등으로 동부팜한농에 인수됨.

- 동부팜한농은 2012년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에 유리온실을 15ha 규모로 건설하였으며 최첨단 생산시설을 설비한 덕분에 토마토 1주당 생산량이 50Kg에서 70Kg까지 증가하였으나 토마토 생산농가 및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화됨.

- 동부팜한농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농업분야 철수를 발표하였지만 2012년 7월 화성시 농민단체에 지분을 매각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음. 동부팜한농과 화성시 농민단체는 동부팜한농의 지분 51%를 농민단체에 매각하고 동부팜한농이 49%의 지분 보유, 신설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함.

● 그러나 농민단체가 동부팜한농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자금마련 방안, 상호 간 상생협력 할 수 운영체계 구축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6.4.2. 농업참여의 문제점

● 토마토 생산자와 농민단체는 동부팜한농의 농업참여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동부그룹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농자재 등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함.

● 동부팜한농은 농업생산 분야에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첫째 생산자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생산 분야에 진입, 둘째 농업계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빠른 속도의 수직적 계열화 체계 구축 등의 요인으로 생산자 및 농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 동부팜한농의 신속한 수직적 계열화 체계 구축은 농업생산, 유통, 가공, 시장, 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기업이 유통마진과 부가가치를 독점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기업의 농업참여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음.

6.5. 기업의 농업참여 특징

● 기업이 직영농장 등의 형태로 농업에 진입할 경우에는 생산자 참여가 어려운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음. 아모레 퍼시픽이나 LG그룹, SK임업 같은 경우 일반 생산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녹차밭이나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

● 기업이 직영농장 및 생산자, 지자체 등과 함께 진입할 때는 자체적인 계열화 체계가 구축되어 가공식품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기업이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때는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업, 가공기업,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통하여 소비하는 유리성을 활용함.

● 기업의 농업참여 형태가 생산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기업이 유통을 담당하는 경우는 기업이 생산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판촉 및 마케팅 활동, 물류대행 등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

● 기업의 농업참여는 직영농장 운영 및 생산자와 연대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협·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참여하는 등 참여방식이 다양화됨.

7.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

7.1. 기업의 농업참여 전제조건

● 기업의 농업참여는 기업과 농업부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우선 기업은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 최근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 외식업, 소매업 등에 있어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됨.

● 또한 농업무분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지역브랜드화, 그리고 지역에서 소비확대 등을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등과의 연대가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농업이 진흥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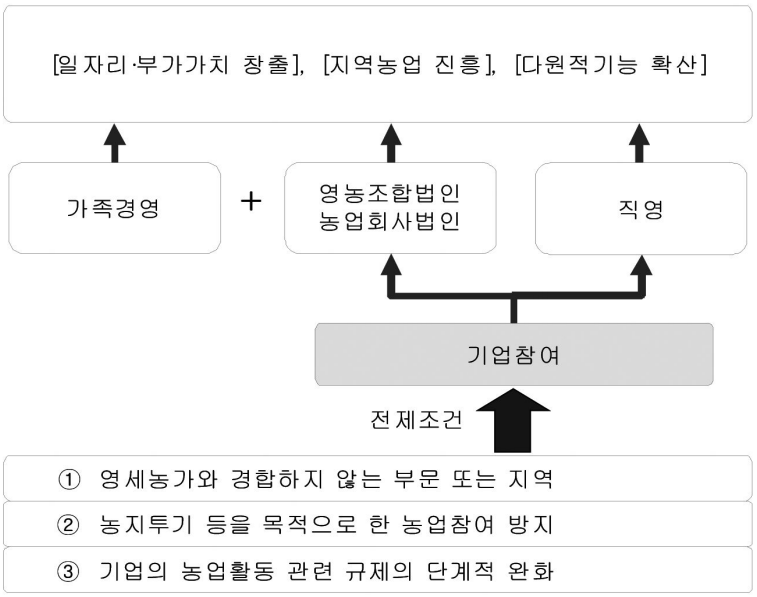
● 단지 기업의 농업참여가 기업의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지역의 영세농가와 경합을 한다든가 기존 농가와 갈등관계를 유발하는 것은 회피해야 함. 즉 지역농업과 기업의 상생한다는 관점을 중시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윤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포함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가, 고령화하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가 등의 관점에서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소득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단독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단지 기업의 농업참여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기업의 농업경영은 기존의 영세한 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농업참여 전제조건 】



자료 : 김태곤(2003. 11)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소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유통업, 외식업, 소매업 등이 바람직함. 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다원적 기능을 확산할 수 있음.

7.2. 상생방안

7.2.1.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1)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종래의 농업은 농업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규모화나 단작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 향상에만 관심이 높았음.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 기능성을 살린 약재나 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원자재 생산에서 농식품의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새로운 경영영역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임. 즉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차산업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쌀을 예로 들면 관행적인 '주식용 생산'에서, ① 친환경 생산이나 다수확 품종 도입에 의한 사료용 쌀 생산 등 '생산의 질적 전환', ② 쌀 '생산'이라는 협의의 농업에서 쌀 가루·쌀 국수·쌀 과자·쌀 떡 등 '쌀 가공'(2차산업)으로의 확대, 그리고 ③ 생산물·가공품을 산지 직판장, 택배, 전자상거래 등으로 직접 판매하는 '쌀 판매'(3차산업)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1)]

(2)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① 농가·지역농협·기업의 연대모델

- 기업의 농업경영이라기 보다는 지역을 단위로 한 농가와 기업간의 직거래 방식
- 지역농협의 개입으로 생산을 지도, 기업의 전산과 물류를 활용하여 협력관계 구축
- 지역농업 진흥효과 등 기대

1) 박성재 외(2008. 12)

② 기업과 생산자의 연대모델

- 기업과 생산자가 공동으로 농업회사업인 설립, 기업의 생산관리로 품질향상, 판매망 확립으로 판로 확대
- 지역의 부가가치 향상효과 기대

③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모델

- 지역단위에서 지자체의 기업 유치사례
- 기업의 유통기능을 활용,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으로 지역급식(학교, 단체 등) 제공
- 지역순환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경제회생효과 기대

④ 제조기업과 지역의 연대모델

- 지역단위에서 일반기업이 가공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에 참여, 원료의 부족분은 지역 생산자와 연대하여 확보
-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농업 진흥 등의 효과 기대

⑤ 외식업과 생산자의 연대모델

- 외식업이 원료 확보를 위하여 직영농장에서 생산·가공·판매, 인근 농가와 계약거래(생산기술 지도, 생산물 전량매입)로 원료 확보
-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가의 소득향상 효과 기대

⑥ 소매업과 지역의 연대모델

- 지역의 슈퍼마켓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재업자·생산자·재활용센터 등의 연대체제 구축
- 자재업자의 자재공급, 생산자의 친환경 생산, 슈퍼마켓의 물류 및 판매,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으로 분업
- 지역순환경제 체제구축 효과 기대

⑦ 농업생산법인과 농가와의 계약거래모델

- 농업생산법인이 본부, 인근 농가가 가맹점이 되어 계약생산체제 구축, 본부는 가맹농가에 생산기술 지도, 토양분석, 자재공급, 생산물은 자사브랜드로 매입, 소매업자에 판매
- 지역농업 진흥효과 기대

7.2.2. 지역사회 공헌의 명시

(1) 기업의 공헌

- 기업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보전이나 지역공헌 등 사회적 책임(CSR)도 강조됨. 우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참여기업은 지역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농도·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지역농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지자체 등과 체결하여 '지역사회공헌'의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전제로 기업의 농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나 지역의 다양한 협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헌방법

- 지역자원(농도, 수리시설 등)의 유지 관리
- 지역의 유휴자원(토지, 노동력, 시설 등) 활용
-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영농후계자 육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 등

7.2.3. 농지임대차 규제의 완화

(1) 규제 완화

● 기업의 농업참여와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영하기 보다는 임대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여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필요함.

● 현행 농지법의 임대차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부분적인 허용 외에, '해제조건부' 또는 '지역한정'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 관리

● 이 경우 농지임대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지를 임차한 기업이 중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함.

● 리스크 관리 조치
- 계약만료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농지의 원상회복
- 중도 계약해지 시의 위약금 지불과 농지원의 회복
-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등에 대해 해결책 등

7.2.4. 지원대책 강구

(1) 지원 주체

● 기업의 농업참여를 둘러싸고는 최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여 농업진흥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제 정비, 다양한 경영모델 제시 등이 필요함. 지자체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외부의 기업과 연대·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지자체의 지원방법

- 토지 확보, 진입도로 등 인프라 정비
- 농지임대차 알선
- 노동인력 제공
- 유휴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 지역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모델 개발
- 지자체와 참여기업과 '협약체결'로 장기적인 신뢰확보

7.2.5. 기업참여 가이드라인 제시

(1) 상생·연대의 추진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의 협조, 농지 알선, 계약해지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참여 사례별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참여기업과 생산자,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절함.

(2) 가이드라인 규정사항

- 기업의 명확한 지역공헌 의사
- 기업의 지역자원 활용과 관리
- 비즈니스 모델과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지자체, 지역농협 또는 농어촌공사 등의 농지 알선
- 지자체의 지원조치
- 계약 해지 시의 준수사항 등

8. 참고 문헌

김정호·김태곤·조성열. 2004. 7.「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정책연구보고 P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2003. 8.「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정책연구보고 P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2003. 11.“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기업의 역할”.「한국농업의 발전과 기업역할의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김태곤. 2009. 3.“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제76호. GS&J

김태곤. 2009. 8.“민간기업”.「농어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C2009-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2010. 1.“기업의 농업경영과 농지규제 완화”.「농정연구」제32호. 농정연구센터.

김태곤 외. 2007.12.「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외. 2008.12.「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青山浩子. 2006. 6.「強い農業をつく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渋谷往男. 2009. 5.「戦略的農業経営」. 日本経済新聞出版社

財部誠一. 2008. 12.「農業が日本を救う」. PHP研究所

鈴村源太郎. 2009. 11.“日本の農業構造と担い手政策の動向”. 第6回東北亜農業農村発展シンポジウム講義資料

槇平竜宏. 2009. 11.“日本における一般企業の農業参入の特徴と今後の課題”. 第6回東北亜農業農村発展シンポジウム発表資料

農林水産省. 2009. 7.“農地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